

한국 YWCA

2024년 01·02월호
JAN·FEB Vol.588

“청소년, 청년들에게 꿈의 날개를 달아주세요”

YWCA 1922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 1922 장학금은 청년, 청소년 장학금과 YWCA 청(소)년 사업에 지원됩니다.
한국YWCA 청년운동은 한국YWCA 100년을 넘어 깨어 있는 청년성과 시대의식으로 연대하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1922-0000-31 한국YWCA연합회

온라인 모금함에서 바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특집 | 2024년도 한국YWCA정기총회

2024 정기총회 스케치
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 공천위원
회원YWCA신임회장, 신임사무총장

기획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한국YWCA 총선 정책

지역과 함께

부천YWCA 성평등 책모임 <월간와이북클럽>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함께 먹는 것의 힘, 희망과 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사)강릉 033.651.1385	(사)안산 031.483.6536
(사)거제 055.682.4950	(사)안양과천군포의왕 031.455.2700
(사)고양 031.919.4040	(사)양산 055.367.1144
(사)광양 061.762.0012	(사)여수 061.654.2161
(사)광주 062.609.1300	(사)울산 052.247.3520
(사)군산 063.462.4491	(사)원주 033.742.6090
(사)김해 055.332.6000	(사)의정부 031.853.6332
(사)남양주 031.577.7762	(사)익산 063.857.8910
(사)남원 063.632.7002	(사)인천 032.424.0524
(사)논산 041.736.7393	(사)전주 063.224.5501
(사)대구 053.652.0070	(사)제주 064.711.8322
(사)대전 042.254.3035	(사)제천 043.645.2580
(사)동해 033.531.3007	(사)진주 055.755.3463
(사)마산 055.246.8746	(사)진해 055.542.0020
(사)목포 061.242.1611	(사)창원 055.283.9488
(사)부산 051.441.2221	(사)천안 041.575.0961
(사)부천 032.668.9700	(사)청주 043.265.3700
(사)사천 055.833.2344	(사)춘천 033.254.4878
(사)서귀포 064.762.1400	(사)충주 043.848.3240
(사)서울 02.3705.6000	(사)통영 055.646.2547
(사)성남 031.708.2503	(사)파주 031.945.5998
(사)세종 044.865.2432	평택 031.651.7701
(사)속초 033.635.3523	(사)포항 054.274.4444
(사)수원 031.252.5111	(사)하남 031.793.7771
(사)순천 061.744.7990	
(사)안동 054.854.5481	



팔레스타인에 평화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팔레스타인에 공습이 시작된 직후 한국YWCA는 팔레스타인YWCA 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팔레스타인 활동가와 민간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열리지 않는 국경 앞에서 쌓여만 가는 긴급 지원 물자를 보내기보다 팔레스타인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함께 씨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오래 전부터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의 땅을 몰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 농민들의 올리브 재배를 방해하였고 이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올리브나무에는 힘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는 힘, 스스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힘, 지친 이들의 생명을 지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는 팔레스타인 평화의 상징입니다.

2024년 평화의 소망을 가득 담아

올리브나무를 심어 주세요.

본 모금은 팔레스타인YWCA에 전달되어 올리브나무를 심는 데 사용됩니다.



2024. 1·2 한국YWCA



표지이야기

2024년도 (사)한국YWCA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22일(목)에 열렸다. 전국 50개 회원YWCA와 연합회 총회원 130여 명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의로운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정의·평화·생명운동을 힘차게 펼치게 된다.

2024년 3·4월 주요일정

- 3월 4일 월례아침기도회
- 3월 6일 YWCA 신임사무총장 교육
- 3월 11일-22일 제 6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UN CSW 68)
- 3월 15일 독일 지구의 벗 BUND 초청 간담회
- 3월 16일 후쿠시마 핵사고 13주기 탈핵에너지 전환대회
- 3월 19일 제1차 전국사무총장협의회
- 3월 21일 YWCA 신임이사 교육
- 3월 23일 연합회 법인이사 교육
- 4월 1일 월례아침기도회
- 4월 12일 제2차 탈핵기후생명 온라인 전국회의
- 4월 20일 (사)한국YWCA연합회 창립기념일
- 4월 30일 YWCA 전국 회장단 연수

제60권 제1호 통권 588호

2024년 2월 29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인 구정혜
 편집 최수산나 이주영 정소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AM10 DESIGN
 인쇄 지경문화사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korea
 구독료 연간 2만 5천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신임회장 취임사**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YWCA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 조은영
- 05 **사무총장 인사말**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의 2024년을 기대하며 | 구정혜

특집 | 2024년도 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 06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기독교시민운동단체로 전국 중점운동 '탈핵기후생명' 채택 | 편집실
- 08 2024-2025 한국YWCA 운동 및 운영정책
- 10 한국YWCA연합회 공천위원·법인이사
- 13 회원YWCA 신임회장·회원YWCA 신임사무총장
- 16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 20 제3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 수상자

기획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 21 2024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 김은경
- 14 한국YWCA 정책 제안 :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 26 **탈핵기후생명**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인 채 '원전 최강국 건설'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 | 이한석
- 28 **평화** 가자전쟁의 미래, 비평화가 뉴노멀이 된 세계 | 이해영
- 30 **소비자 운동**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 안정희
- 32 **이슈포커스** 제 21차 한일YWCA 청년협의회_나의 평화 너의 평화 우리의 평화 | 김수진

이달의 현장 ① 2024 Y-틴 전국협의회 | 이은혜

이달의 현장 ② 2024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 손지수

이달의 현장 ③ 2023년도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 편집실

이달의 현장 ④ 2024 YWCA 신임회장교육 | 정서연

지역과 함께

부천YWCA 성평등 책모임 <월간와이북클럽>
 우리는 관계 안에서, 책을 매개로,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가다 | 소연

중·인

청년토크 no 출생! 대학·청년Y

2024 신년예배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연합회 소식

회원YWCA 소식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YWCA사명을 다하겠습니다

102년전 변화를 향해 햇불을 들었던 한국YWCA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작은 자들이 우리 자신과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또 다시 변화를 향해 이 땅의 여성들과 함께 새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 순간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YWCA에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국 50개 회원YWCA와 연합회를 통해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YWCA 회원들



조은영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

들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데 더욱 힘쓰는 Y의 사명을 이루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독립된 법인으로서 어느 때보다 운영과 운동의 도전을 맞이한 회원 YWCA들이 지속 가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래 왔듯이 연합회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회원 YWCA의 현실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마음과 실천하는 행동으로 저를 포함한 연합회의 모든 활동가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합의하여 수립한 한국YWCA 운동과 운영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회원YWCA의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을 기리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시편 121편 1~2)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지체인 Y자매들과 함께, 이 땅의 여성들과 함께, 변화를 향해 나아가갈 때, 하나님의 예정하신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23동안 YWCA 공동체에서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행동으로 솔선수범하신 Y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지난 코로나 상황 중에 한국 YWCA 100주년을 원영희 회장님과 구정혜 사무총장님, 전국의 자원, 실무 활동가들과 함께 회장단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스러운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여성시민단체로서 우리 YWCA는 역사와 체계, 풍요로운 경험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나 새로운 100년을 살아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주년 비전을 통해 우리가 함께 꿈꾸었듯이, 깨어 있는 시대 의식으로 우리 인과 밖의 작은 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보다 자유롭도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기후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생명들을 살려내고,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우리 YWCA의 운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들의 2024년을 기대하며



구정혜

(사)한국YWCA연합회 상임이사

2024년 2월 22일, (사)한국YWCA연합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연합회 회장단을 비롯하여 법인이사, 공천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2년 동안 추진해 나갈 운동·운영정책과 2024년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불안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활력있는 시민운동단체로서 정의·평화·생명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역할들이 많지만, 올해 특별히 집중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회원YWCA와 함께 책임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연합회의 역할입니다.

연합회는 올해 사업목표를 첫째, 회원YWCA 지역운동 강화, 둘째, 탈핵기후생명운동의 회원 및 시민참여 확대, 셋째, 청(소)년운동 활성화, 넷째, 회원YWCA 법인운영역량 강화, 다섯째, YWCA 브랜드 강화(홍보, 모금)로 세웠습니다.

회원YWCA 법인전환을 진행하고 완료한 초기에는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라는 행정 역량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재구조화의 목적인 “독립적인 시민운동조직으로서의 주체적 운동성 회복”을 위해 운동역량을 키우고 회원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Y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때입니다. 연합회는 회원Y의 지역운동 강화를 위해 우선 운동영역별 교육과 협의, 워크숍 등을 통해 활동가들의 운동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며, 지역 특화 운동의 이슈별 사례들을 공유하고 활동가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협의의 장을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Y의 핵심운동영역인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운동분야의 정책 제안과 공약모니터링, 유권자운동을 진행하고, 캠페인,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 영역별 운동들을 홍보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세부사업들도 추진합니다.

YWCA 브랜드 강화를 위한 예산이나 역량 투입이 연합회와 회원Y 공히 쉽지 않은 일이나 운동체로서의 정체성 유지와 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이므로 <월간 한국YWCA>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SNS와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홍보와 모금, 운동사례 공유 등에 집중하겠습니다.

특별히 국제운동기관으로서 CSW, 한일Y청년협의회, 동아시아여성평화 네트워크, 세계Y Rise up프로젝트, Y-틴 드림십프로그램 등 국제 교류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활동가급 로벌리더십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운영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 운동·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정례 교육과 온라인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공익법인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YWCA 법인운영매뉴얼과 컨설팅, 전문자문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회원YWCA의 현황에 맞추어 ‘찾아가는 회원Y 이사 교육’을 신설하고, 활동 회원 확보와 재정 마련을 위한 회원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청년회원의 확보와 조직의 변화를 위한 청년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홍청망청’을 유지하여 Y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Y-틴과 대학청년Y 회원, 실무활동가를 위한 장학사업도 꾸준히 진행합니다.

2024~2025 운동정책의 주제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입니다. YWCA 회원들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생명을 품고,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는 실천자이자 활동가로서 행동하는 2024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연합회의 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변화 이끄는 기독교시민운동단체로 전국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 채택

1 글·편집실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2월 22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직무상대표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2024년 정기총회는 사무회의에서 2024-2025년 공천위원·법인이사 선출의 건, 광명YWCA 탈퇴의 건, 2024-2025 한국YWCA 운동 및 운영 정책 채택의 건, 2024년 한국YWCA 사업 계획과 예산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마지막 안건으로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을 선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때 아닌 폭설로 좋지 않은 교통 상황에도 이른 새벽부터 총회장으로 향한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와 연합회 직무상대표들은 총회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약간의 긴장감과 새로 선출되는 회장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등록대 주변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등록을 마친 후 열린 개회예배에서는 새문안교회 이상학 담임목사가 '잃어버린 복음의 자신감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또 2024

년에 새롭게 회원YWCA에서 선출된 15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이 특별찬양을 했다.

개회선언으로 시작한 사무회의1 순서에서는 황혜숙 공천위원장의 공천보고가 있었다. 공천위원 9명(연합회 4명, 회원YWCA 4명, 청년위원 1명)을 선출하고 이어서 법인이사 20명(연합회 8명, 회원YWCA 8명, 청년이사 4명)을 선출했다. 공천위원과 법인이사 모두 정수 공천으로 선출됐다. 사무회의 2시간에는 제3회 이행자리더십 어워즈상 시상과 2023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가 진행됐다.

2024-2025 2년간 연합회와 전국 50개 회원 YWCA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의로운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하여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중점운동으로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등 YWCA 목적에 기반한 운동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을 전개할 것을 채택했다.

한국YWCA 중점운동으로 채택된 '탈핵기후생명운동'은 에너지전환,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 탈핵·기후관련 시민


의식 확산의 과제로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성평등운동은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젠더기반 폭력 저지, 성평등 운동 주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평화·통일운동은 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참여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민주 시민의 역량을 획득하고 주체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사업을 펼친다. 각 운동영역의 사업 계획에는 4월 총선 대응 YWCA 의제 제안과 유권자 운동, 지역운동 활성화,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청년리더십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신임회장단 선출, 신임회장에 조은영 연합회 제1부회장

(사)한국YWCA연합회 정책 채택과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한 후에는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선출로 이어졌다. 투표는 각각 연합회 임원단 경력을 지닌 4명의 후보 김은경, 이은영, 조은영, 함희경 회원 중에서 각각 과반 이상을 획득한 회원이 선출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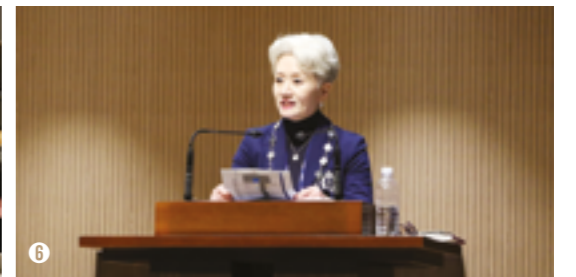
다. 신임 회장단으로는 조은영 회장, 김은경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서다미 청년부회장이 선출되었다. 회장단은 2024-2025 2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어 한국YWCA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2년 제정된 이행자리더십어워즈의 제3회 수상자로 (사)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직전 회장이 선정되었다. 지난 4년간 회원YWCA 재구조화와 (사)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기념 행사, 한국YWCA 회관 마스터리스 등 굵직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한국YWCA 구조변화와 전국YWCA 법인화를 통해 기독교민여성단체로서 공익운동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공헌한 업적이 선정사유다.

(사)한국YWCA연합회는 지역법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50개 지역YWCA와 협력하고 연대하여 2024년 한 해에도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의로운 탈핵·탈석탄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을 비전으로 기독교여성시민사회운동단체로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1 사무회의 의장석 2 개회예배에서 특송하는 회원YWCA 신입회장



1 한국YWCA연합회 법인이사들 2 서다미 청년부회장 3 이은우 Y-T인 전국협의회장과 이예림 대학·청년Y전국협의회장
4 총회원이 질의하는 모습 5 연합회 회장단(왼쪽으로부터 이은영 부회장, 서다미 부회장, 조은영 회장, 김은경 부회장)
6 조은영 회장의 취임사 모습 7 YWCA회가 제창으로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고 있다.

2024~2025 한국YWCA 운동정책

주제 :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한국YWCA 탈핵기후생명운동

비전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의로운 탈핵·탈석탄 에너지 전환 사회 구축		
중장기 목표	① 탈핵·탈석탄 운동을 통한 에너지전환 사회 기반 구축 ② 회원YWCA와 지역사회가 만드는 재생에너지 확대 운동 ③ 탈핵기후생명운동 시민실천가 양성 5만 명 : 청(소)년 10% 이상 ④ 성평등 관점의 기후에너지정책 수립		
전국중점운동	탈핵기후생명운동		
과제	① 에너지 전환	- 수명 다한 노후핵발전소 영구정지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 노후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및 신규 석탄화력 건설 백지화 - 지역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절약운동 - 성평등 관점의 기후에너지정책 수립과 교육활동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기준 및 방사능급식 조례 제정 운동	
	② 성평등 관점의 기후 대응	-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 대응정책 수립 촉구 -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모니터링(성인지 예산 등)	
	③ 탈핵기후 관련 시민 의식 확산	- 탈핵기후 교육 및 캠페인 - 탈핵기후 이슈 대응(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등) - 기후위기 대응 실천 운동(제로웨이스트 운동,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	
지역특화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
목표	모든 형태의 젠더폭력을 철폐하고 여성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역량을 강화한다.	일상 속에서 평화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참여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 기반을 마련한다.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획득하고 주체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과제	①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정부/지자체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활동 - 동일노동 동일임금 운동 - 국회 여성 동수 실현 ② 젠더 기반 폭력 저지 - 기술 매개 젠더 기반 폭력 근절 관련 법안 및 정책 제안 활동 ③ 성평등운동 주체 역량 강화 - 성평등 교육과 캠페인 실시 - 기독여성주의 활동 확대	① 평화인식과 문화 확산 -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촉진 (중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 시민 평화·통일 교육 및 캠페인 ② 평화·통일 분야의 여성·청년 참여 촉진 - 국방안보·평화·통일 정책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 촉구 - 동아시아 여성·청(소)년의 평화 활동 연대 구축 -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및 기행	① 청(소)년 회원 확보 및 리더십 양성 - 청(소)년 활동가 리더십 발굴 - 청(소)년 자치활동 지역조직 확대 ② 지역 청(소)년의 주도적 운동 전개 - 지역 청(소)년 운동의 이슈 발굴 및 실천 활동 ③ 지속가능한 청(소)년 운동 기반 마련 - 청(소)년운동 담당활동가 역량 강화 - 청(소)년운동 확대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책제안의 기본 방향

① 한국YWCA 목적문에 명시된

정의·평화·생명의 하나님나라 운동 전개

- 하나님나라 운동의 가치인 정의·평화·생명과 시대정신에 따라 YWCA가 전개해 온 탈핵기후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4대 운동 영역을 유지한다.

- 100주년 비전선언이 제시하는 깨어있는 시대의식, 성평등한 사회, 기후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기독정신, 다양한 주체들과의 연대를 실현한다.

②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지속 전개

- 핵발전소 수명 연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핵폐기물 등 핵발전으로 인해 날로 가중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2024~2025 한국YWCA 운영정책

한국YWCA 조직운영

비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건강하고 투명한 기독시민운동단체	
중장기 목표	① 회원YWCA 본부 재정의 회비기부금 비율 50% 이상 확보 ② 활동회원 5,000명을 시민활동가로 양성	
목표	① YWCA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조직운영 역량 강화 ②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③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YWCA 활동가 운동역량 강화 ④ 지속가능한 조직운영 기반 마련	
과제	① 회원 참여 확대	1) YWCA 회원정책 연구 및 수립 2) YWCA 활동회원(장·준회원, 청소년회원) 활동성 강화 3) 회원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소모임 조직 활성화 4) YWCA 후원회원 확보
	② 청년리더십 개발	1) YWCA 운동과 의사결정 구조에 청년 참여 확대 2) 청년 주제 운동모델 개발
	③ YWCA 지역운동 강화	1) YWCA 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운동역량 교육 2) YWCA 지역운동 개발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별 정책 연구 3) YWCA 지역운동 개발을 위한 광역사도협의회 연대 강화
	④ YWCA 공익법인 책무성 강화	1)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교육 2) YWCA 법인운영 공통매뉴얼 제작(회계, 세무, 노무, 법무 등) 3) 공익법인 컨설팅 기능 강화 4) 회원YWCA 본부의 부속시설 관리(감독) 강화
	⑤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	1) 회원YWCA 본부 자체 재원 확대 2) 모금 프로그램 개발 3) 수익사업 모델 개발
	⑥ YWCA 연구구조 정착	1) 연합회-회원YWCA 연대와 협력 강화 2) YWCA 브랜드 관리 및 정체성 강화

지역을 살리는 일,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현재와 다음 세대들을 비롯하여 지구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지체할 수 없는 한 쌍의 생명운동이다.

- 전 지구적 이슈이자 현 시대 모든 사회적 현상들과 연관된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으로 인한 부정의한 에너지를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하는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중점 운동으로 전개한다.

③ 지역운동 강화


- YWCA는 지역법인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자적 시민운동조직으로 역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특별히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지역정책에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주요의제를 각 지역 상황에 맞게 회원YWCA가 찾아내고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 지역의 이슈와 운동이 타 지역 또는 전국으로 이어져 함께 해결하도록 지역별 연대, 전국 단위 연대를 확장, 강화해나간다.


④ 시민운동 주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

- YWCA는 대중시민운동 조직으로서 시민 주체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현장의 절실한 문제에 관심갖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연결되도록,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를 구축하고 운동을 확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 YWCA 회원들이 지역 시민운동의 주체가 되어 YWCA의 비전이 일상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소통한다. 


2024~2025 연합회 공천위원

김은주 (연합회)




- 2011 ~ 2019 연합회 위원
- 2016 ~ 2021 연합회 집행위원
- 2019 ~ 2021 연합회 위원장
- 2019 ~ 2023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현)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

명진숙 (연합회)



- 2013 ~ 2018 연합회 실무활동가(국장)
- 2018 ~ 2023 YWCA은학의집 관장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전) 한국어성인문화-한국여성재단 사무국장

문미란 (연합회)




- 2011 ~ 2020 연합회 집행위원
- 2012 ~ 현재 연합회 위원
- 2021 ~ 현재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이사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전) 법무법인 남산(미국변호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현) 소비자시민모임 제 15대 회장

원영희 (연합회)




- 1978 ~ 1979 서울YWCA 실무활동가
- 1989 ~ 2020 서울YWCA 위원
- 2003 ~ 2020 연합회 집행위원, 위원장, 임원
- 2011 ~ 2015 세계YWCA 이사
- 2015 ~ 2023 세계YWCA 공천위원
- 2020 ~ 2023 연합회 법인이사, 회장
- 2024 ~ 현재 연합회 직전회장, 연합회 공천위원
- 현) CR번역 연구소 소장

김덕순 (회원YWCA)




- 1997 ~ 2011 울산YWCA 사무총장
- 2020 ~ 2021 울산YWCA 이사
- 2021 ~ 2023 울산YWCA 회장
- 2022 ~ 2023 경상권역협의회 대표
- 2022 ~ 2023 연합회 이사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전) 울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자영 (회원YWCA)




- 2018 ~ 2023 인천YWCA 사무총장
- 2015 ~ 2018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16 ~ 2018 인천YWCA 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2024 ~ 현재 인천YWCA 이사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참가쁨교회
- 전) 인천시 여성문화회관 관장

정지운 (회원YWCA)




- 2011 ~ 현재 광주YWCA 위원, 위원장
- 2017 ~ 2018 광주YWCA 부회장
- 2019 ~ 2020 광주YWCA 회장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전) 사회적경제활성화광주네트워크 공동대표

정혜원 (회원YWCA)



- 2001 ~ 2003, 2008 ~ 2010 대전YWCA 위원, 위원장, 이사, 임원
- 2012 ~ 2020 대전YWCA 부회장, 위원장
- 2020 ~ 2023 대전YWCA 회장
- 2022 ~ 2023 충청권역협의회 대표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전) 한남대학교 교수
- 현) 배재대학교 교수

박지인 (청년)




- 2003. 11. 13 부천Y 대학 청년YWCA 회장
- 2023 ~ 현재 부천Y 대학 청년YWCA 회장
- 2024 ~ 현재 대학-청년YWCA협의회 기획국장
- 2024 ~ 현재 연합회 공천위원
- 현) 부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2024~2025 연합회 법인이사


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 2006 ~ 현재 연합회 위원, 위원장
- 2009 ~ 2021 연합회 집행위원
- 2020 ~ 2021 연합회 임원(서기)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서기), 위원장
- 2024 ~ 현재 연합회 제1부회장
-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
- 현)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남유진




- 2021~현재 YWCA 성평등운동 관련 연구, 강연
- 2021~현재 연합회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 2024~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박윤애




- 1997 ~ 현재 연합회 위원, 위원장
- 2020 ~ 2021 연합회 집행위원
- 2022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위원장
- 전) 세계자원봉사협회(AVE) 이사
- 현)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이은영




- 1995 ~ 2003 연합회 자원봉사
- 2003 ~ 2021 연합회 위원, 집행위원, 임원
- 2021 ~ 현재 YWCA복지사업단 이사
- 2022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제2부회장, 위원장
- 목양교회
- 전) 수도권경제교육센터 센터장(YWCA운영)
-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희숙



- 2021. 5 ~ 현재 연합회 재구조화전문단 위원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개포동교회
- 전) 법무법인 (유)로고스-주식회사 포스코 변호사
- 현)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

조은영




- 2001 ~ 현재 연합회 위원, 위원장
- 2003 ~ 2021 연합회 집행위원, 위원장, 임원
- 2009 ~ 2010 사회서비스선도사업 Y돌봄과 실업 대표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 제1부회장, 위원장
- 2024 ~ 현재 연합회 회장
- 전) 서울장신대 교수, 학과장
- 현) ㈜조우코크리에이션 대표

함희경



- 1995 ~ 2006 연합회 자원봉사자, 위원
- 2006 ~ 2021 연합회 집행위원, 임원(서기), 위원장
- 2014 ~ 2017 YWCA복지사업단 이사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 위원장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서기)
- 사랑교회
- 현) 더라이프(주) 대표이사, 유한대학교 강사


송소연 (청년)



- 1997. 11. 12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기획국장
- 2020 ~ 2021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기획국장
- 2020 ~ 2022 연합회 위원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주성교회
- 현) 도종환국회의원실 비서관


회원YWCA

김연희



- 1985 ~ 1990 대구YWCA 위원
- 1991 ~ 현재 대구YWCA 이사
- 2022 ~ 현재 대구YWCA 회장
- 2024 ~ 현재 경상권역협의회 대표, 연합회 법인이사
- 현) 대구의료원 이사, 프로이데전문인 여자 신학교 교수

강경숙



- 1997 ~ 현재 목표YWCA 이사, 위원장, 위원
- 2000 ~ 2011 목표YWCA 서기 이사
- 2019 ~ 2022 목표YWCA 부회장
- 2023 ~ 현재 목표YWCA 회장
- 2024 ~ 현재 전라-제주권역협의회 대표, 연합회 법인이사
- 전) 목표 어깨동무 지역센터장

회원YWCA 신임회장


회원YWCA

반혜영




- 1990 ~ 1995 창원YWCA 간사
- 1995 ~ 2012 창원YWCA 어린이집 시설장
- 2013 ~ 현재 창원YWCA 사무총장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창원늘푸른교회

이강숙




- 2008 ~ 2016 안산YWCA 위원
- 2015 ~ 현재 안산YWCA 이사(서기)
- 2021 ~ 현재 안산YWCA 회장
- 2024 ~ 현재 경기권역협의회 대표, 연합회 법인이사
- 현) 4·16재단 이사, 안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

이신선




- 1994 ~ 1996 서귀포YWCA 간사
- 1996 ~ 현재 서귀포YWCA 사무총장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 이사
- 전)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 제주도 1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이혜경




- 1961. 4. 7
- 2005 ~ 현재 천안YWCA 이사(회계, 서기)
- 2022 ~ 2023 천안YWCA 부회장
- 2024 ~ 현재 천안YWCA 회장, 충청권역협의회 대표 연합회 법인이사
- 전)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운영위원장
- 현) 광제산부인과 음악치료사, 예미맘스쿨 강사

조연신



- 2013 ~ 2020 서울YWCA 임원, 위원장, 위원
- 2021 ~ 2022 서울YWCA 제2부회장, 위원장
- 2023 ~ 현재 서울YWCA 회장, 경기권역협의회 대표, 연합회 법인이사
- 전) 오글라호마주립대 초빙교수
- 현) ㈜코링텍 대표이사


손예지 (청년)



- 2016 ~ 2017 전주YWCA 대학 청년Y 회장
- 2017 ~ 2017 전주YWCA 인턴심활동
- 2018 ~ 현재 (사)전주YWCA 실무활동가
- 2019 제29회 YWCA세계대회 청년대표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현) 전라북도청소년도자 연구모임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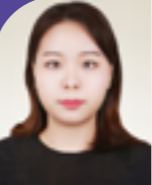
청년이사

서다미




- 2018 ~ 2018 Y-틴 전국협의회 회장
- 2021 ~ 2023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회장
- 2022 한국Y 100주년 준비 공동위원장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회계)
- 2024 ~ 현재 연합회 청년부회장, 법인이사

이예림




- 2019 안양YWCA Y-틴 회장
- 2021 ~ 2023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기획국장
- 2021 ~ 2022 한국Y 100주년 준비위원회 청년참여단
- 2021 ~ 2022 좋은미디어콘텐츠상 심사위원
- 2022 ~ 2023 연합회 공천위원회 위원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회장

조은지




- 2018 ~ 2018 대전YWCA 대학·청년YWCA회장
- 2019 ~ 2019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기획팀장
- 2020 ~ 2020 연합회 위원
- 2021 ~ 2022 한국Y 100주년준비 청년참여단
- 2022 ~ 2023 연합회 법인이사, 청년부회장, 위원장
- 2024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 현) 천안시누리별장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최선화




- 2012 Y-틴 전국협의회 회장
- 2017 대학·청년Y전국협의회 회장
- 2018 ~ 2020 연합회 위원
- 2022 ~ 현재 연합회 법인이사, 위원
- 전) 수원여성인권 돌봄 활동가
- 현) 토끼네잡화상점 소품샵 대표

(사)거제YWCA 김귀원



- 2008 거제YWCA 다문화센터 강사
- 2009~2023 거제YWCA 회계이사, 서기이사, 부회장
- 2024~현 (사)거제YWCA 회장

(사)광양YWCA 장삼희



- 2016 광양YWCA 부서기
- 2017~2019 광양YWCA 제2부회장
- 2020~2023 광양YWCA 제1부회장
- 2024~현 (사)광양YWCA 회장

(사)남양주YWCA 하행여



- 2004~2005 남양주YWCA 실무활동가
- 2015~2020 남양주YWCA 회장
- 2020~2024 남양주YWCA 이사
- 2024~현 (사)남양주YWCA 회장

(사)남원YWCA 노길희



- 2008~2012 남원YWCA 이사
- 2012~2020 남원YWCA 서기이사
- 2020~2023 남원YWCA 부회장
- 2024~현 (사)남원YWCA 회장

(사)대전YWCA 홍유미



- 2011~2023 대전YWC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문화예술·청소년위센터·인사지도력 공천위원회위원, 위원장
- 2016~2019 대전YWCA 부회계이사
- 2019~2024 대전YWCA 회계이사
- 2024~현 (사)대전YWCA 회장

(사)마산YWCA 박현숙



- 2015~2023 마산YWCA 이사
- 2024~현 (사)마산YWCA 회장

(사)서귀포YWCA 김정미




- 2007~2013 서귀포YWCA 이사
- 2014~2016, 2020~2023 서귀포YWCA 부회장
- 2024~현 (사)서귀포YWCA 회장

(사)순천YWCA 조혜숙




- 2018~2020 순천YWCA 부회계이사
- 2021~2022 순천YWCA 서기이사
- 2023 순천YWCA 부회장
- 2024~현 (사)순천YWCA 회장

(사)양산YWCA 박정숙



- 2009~2020 양산YWCA 이사
- 2021~2023 양산YWCA 부회장
- 2024~현 (사)양산YWCA 회장

(사)여수YWCA 박은경



- 2018~2023 여수YWCA 청소년/회원지도력 여성인력개발센터/재정위원회 위원, 위원장
- 2021 여수YWCA 서기이사
- 2022~2023 여수YWCA 부회장
- 2024~현 (사)여수YWCA 회장

회원YWCA 신임사무총장

(사)울산YWCA 김태경



- 2018~2023 울산YWCA 프로그램/청소년·대학/사회개발위원회 위원, 위원장
- 2019~2021 울산YWCA 회계이사
- 2022~2023 (사)울산YWCA 제2부회장
- 2024~현 (사)울산YWCA 회장

(사)제주YWCA 정윤희



- 2012~2019 제주YWCA 통합상담소 사회개발위원회 위원, 위원장
- 2015~2019 제주YWCA 이사
- 2020~2021 제주YWCA 서기이사
- 2022~2023 (사)제주YWCA 제1부회장
- 2024~현 (사)제주YWCA 회장

(사)광주YWCA 윤정순



- 1997~2005 광주YWCA 간사
- 2005~2010 광주YWCA 부장,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대리
- 2011~2016 광주YWCA 국장
- 2019~2020 고령자인재은행 관장
- 2021~2023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24.1~현 (사)광주YWCA 사무총장

(사)김해YWCA 이지현



- 1998~2017 어린이집원장
- 2019~2023 (사)엠마오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사
- 2023.1~11 인제대, 춘해대 외래교수
- 2023.12~현 (사)김해YWCA 사무총장

(사)천안YWCA 이해경



- 2005~2010 천안YWCA 이사
- 2011~2013 천안YWCA 회계이사
- 2020~2021 천안YWCA 서기이사
- 2022~2023 천안YWCA 제1부회장
- 2024~현 (사)천안YWCA 회장

(사)하남YWCA 이강숙



- 2016~2019 하남YWCA 회장
- 2024~현 (사)하남YWCA 회장

(사)논산YWCA 이명진




- 2008~2013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간사
- 2013~2024.4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
- 2024.5~현 (사)논산YWCA 사무총장

(사)수원YWCA 김윤희



- 1997~2002 수원YWCA 간사
- 2002~2008 영통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2008~2010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11~2012 수원YWCA 부장
- 2012~2020 수원YWCA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관장
- 2020~2023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
- 2024.1~현 (사)수원YWCA 사무총장

(사)여수YWCA 유춘진



- 2002~2003 여수YWCA 어머니 한글교실 자원활동가
- 2005~2023.6.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센터장
- 2023.7~현 (사)여수YWCA 사무총장

(사)충주YWCA 표효순



- 2009~2016 충주YWCA 회계행정프로그램부 간사, 팀장
- 2016~2022 충주YWCA 행정프로그램부, 직업개발부 부장
- 2022~2024.2 충주YWCA 직업개발부, 행정프로그램부 국장
- 2024.3~현 (사)충주YWCA 사무총장


Y-틴 /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

Y-틴 전국협의회장



(사)대전YWCA
이은우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장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예림

(사)춘천YWCA 이기자



- 2015~2020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사 및 직원
- 2020~2022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
- 2022~2023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2024.1~현 (사)춘천YWCA 사무총장

평택YWCA 이소정



- 2001~2009 평택YWCA 사무총장
- 2024.2~현 평택YWCA 사무총장

사진으로 보는 회원YWCA 정기총회 현장

2024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전국 50개 회원 YWCA는 정기총회를 열어 전년도 활동과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진행할 사업 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회원 YWCA를 대표하는 회장을 선출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원YWCA에 따라서는 회원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하는가 하면 Y-틴이나 대학·청년YWCA 회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경기권역

- ①고양YWCA ②남양주YWCA
- ③부천YWCA ④성남YWCA
- ⑤수원YWCA ⑥안산YWCA
- ⑦안양과천군포의왕YWCA
- ⑧의정부YWCA ⑨파주YWCA
- ⑩평택YWCA ⑪하남YWCA



경인·강원권역

- ①강릉YWCA ②동해YWCA ③서울YWCA
- ④속초YWCA ⑤원주YWCA ⑥인천YWCA ⑦춘천YWCA



충청권역

- ①논산YWCA ②대전YWCA
- ③세종YWCA ④제천YWCA
- ⑤천안YWCA ⑥청주YWCA
- ⑦충주YWCA



경상권역

①거제YWCA ②김해YWCA ③대구YWCA ④마산YWCA ⑤부산YWCA ⑥사천YWCA ⑦안동YWCA ⑧양산YWCA
 ⑨울산YWCA ⑩진주YWCA ⑪진해YWCA ⑫창원YWCA ⑬통영YWCA ⑭포항YWCA



전라·제주권역

①광양YWCA ②광주YWCA ③군산YWCA ④남원YWCA ⑤목포YWCA ⑥서귀포YWCA ⑦순천YWCA
 ⑧여수YWCA ⑨익산YWCA ⑩전주YWCA ⑪제주YWCA



제3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수상자

한국YWCA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 널리 알리고
한국YWCA 조직 변화와 전국YWCA 법인화 이끌어



원영희 (사)한국YWCA연합회 직전회장

YWCA
경력

- 1978 ~ 1979 서울YWCA 실무활동가
- 1989 ~ 2020 서울YWCA 위원
- 2003 ~ 2020 연합회 실행위원, 위원장, 임원
- 2011 ~ 2015.11 세계YWCA 이사
- 2015 ~ 2023.11 세계YWCA 공천위원
- 2020.8 ~ 2024.2 연합회 법인이사, 회장

선정
사유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장은 1978년부터 YWCA 활동을 시작하여 약 36년간 YWCA에서 위원, 이사, 회장, 세계YWCA 이사, 공천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회장으로서는 한국YWCA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YWCA 구조변화와 전국YWCA 법인화를 통해 기록시민여성단체로서 공익운동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공헌하였다.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제정 취지 : 이행자리더십어워즈는 한국YWCA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행자리더십기금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제정되었다.

역대수상자 : 제1회 유성희 전 (사)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제2회 김선옥 (사)광주YWCA 직전회장 · 이유림 (사)서울YWCA 직전회장

2024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은경

(사)한국YWCA연합회 제1부회장, 세종리더십개발원장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행태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거대 양당체제를 타파한다는 미명하에 반여권(女權)적 성향의 정치세력들과 여권·인권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간의 기묘한 결합은 상황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다. 기후 위기, 저출생, 폭력과 차별, 안전, 지방 소멸 등 쌓여가는 정치적 과제들에 대한 그들의 해법은 무엇일까? 지난 선거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익숙한 풍경이기도 하지만 '다른 정치'에 대한 바람은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기에 여전히 답답하다.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정책 선거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2명. 저출생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으로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감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힘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원→210만원)과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 사용 의무화 방안을 내세웠다. 민간 기업이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출산지원금을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68만원에 그친다. 상당수 기업의 출산보육수당이 비과세 한도(120만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기업 차원의 특별한 예외'를 가져와 법을 고쳐 한도 상향을 논하고 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저출생 위기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총선용 정책이 되어 떠돌고 있다. 출생률 제고는 OECD 최하위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성평등한 조직 문화에 있다는 국제사회 권고를 되새길 때 가능하다.

제3시대 여성 병역 논쟁도 '분석'해 볼 일이다. 개혁신당은

여성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신규 공무원 희망자에게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을 통해 2030년부터 여성의 병사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성역할'이 아닌 '병역자원 확보'와 군경력 가산에 따른 불평등 논쟁 차단에 중점을 둔 공약이라고 하는데, 시대착오적이고 성차별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으면 여자도 군대 가라'는 이 공약은 병역제도 혁신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병역자원 확보와 무관한,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화할 뿐이다. 병역 의무를 완수하지 않은 여성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인가.

'안전한 공간'에 대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등산로에 더 이상 여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관악구 한 공원에서 벌어진 강간살인 이후 20~30대 여성들은 공원에 가지 않는다. 등산로 살인사건 이후 펼쳐진 '안전을 위해 2인 이상 동반 산행 바란다'는 현수막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CCTV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한시적 순찰 강화로 모두의 공원이 될 리 만무하다. 여성에 대한 흉악 범죄를 넘어 생활공간까지 파괴한 현실에 정치는 어떤 처방이 가능할까. 평등한 도시, 안전한 도시로의 변화는 살아 숨 쉬는 공간이 그 어떤 곳도 안전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는 공간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만들면 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성평등 정책의 기초가 유지되는 가운데,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기에 모든 정부 부처가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같은 정치적 목표로 상호 협력하고, 경제부처의 경우 성평등 이슈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성경제 활동 관련해서 협조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성평등 정책을 펼친 노르웨이 정부의 사례다. 최고 지도자의 여가부 폐지 발설과 함께 성평등 사회가 국정 목표에서 사라진 뒤 한국사회와 대조적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2년 24위로 2021년 16위에서 8계단 하락했다.

대의성의 문제


2020년,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후보들은 972명. 공천을 받은 모든 후보들 중 20~40대 후보는 27.0%, 통합당의 20~40대 후보 공천율은 22.2%, 민주당은 14.7%였으며, 여성후보 공천율은 통합당과 민주당 각각 11.3%와 13.4%였다. 과다대표된 남성과 과소대표된 여성의 정치영역의 성 불균형의 문제는 22대 총선에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의 경력과 특정 대학 출신 비율도 여전하다. 후보자들의 경력은 정당인 46.2%, 전·현직 국회의원 22.7%, 시민단체 활동가 14.9%, 교수 등 학계 출신 13.4%, 변호사 10.6% 순이었다. 변호사 즉, 총 40명의 검찰 출신 후보 중 통합당이 24명, 민주당이 8명이었다. 특정 대학 출신 비율, 소

위 ‘SKY대학’ 출신 비율은 통합당이 39.4%, 민주당의 34.8%였다. 대의성과 대표성 강화를 표방한 정치개혁 논의는 산산이 부서졌고, 비례위성정당의 악몽은 다시 현실이 되어 돌아왔다. 청년과 여성이 없는 중년 남성 중심의 정치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된 듯, 전·현직 여성정치인이 지목한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는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이다.

YWCA의 선택

기독교여성주의운동단체로 한국YWCA는 2024. 4. 10 총선을 앞두고 올해도 어김없이 Y운동을 중심으로 총선 정책을 제안한다.

- 탈탄소 의지가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과 성평등 관점의 기후위기재난대응정책 수립
- 혐오범죄 증가, 인권행정 후퇴, 노동권 약화에 맞서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와 노동환경의 구조적 차별개선 그리고 기술 기반 젠더 폭력 철폐
- 남북관계 개선과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정책 분야 여성대표성 확대를 목표로 일상 속 평화 문화 확산과 여성참여 및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마련

총선을 앞둔 거대 양당의 시선은 우리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성별 노동격차 개선’을 목표로 제시하고(녹색정의당),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금지 내용 등을 담은 ‘성평등 노동기본법’ 추진(진보당)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가부장제와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성평등 교육 강화, 비동의의 강간죄 도입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는 그들의 관심 밖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치우는 노력들은 이번 선거에서도 외면 받고 있다. 악순환 속에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단 한 가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민주시민으로, 여성유권자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평화·정의의 세상을 위한 유효한 선택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여성 정치인들이 선택한 30대 입법과제

순위	분야	입법과제
1	정치 행정	✓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
2	정치 행정	✓ 정치 양극화·사회갈등 대응책 마련
3	인구 교육 사회	✓ 4차 산업 시대 직업교육 시스템 수립
4	경제 이해관계	✓ 장기적 경기침체 속 서민 생활 안정책 마련
5	기후-생태	✓ 이상기후-감염병 대응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6	외교-국방	✓ 신종 안보 위협 대응 정부 조직 설치
7	주거-균형발전	✓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8	생명과 보건의료	✓ 자살예방 생명존중 문화 확산
9	주거-균형발전	✓ 지방소멸 대비 종합대책 마련
10	외교-국방	✓ 중·미 균형외교 강화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212>

22대 총선 한국YWCA 영역별 정책 제안

탈핵기후생명 부문

성평등 관점의 기후대응 및 탈핵-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 한국 사회의 더 많은 시민들과 후보자들이 핵발전을 넘어 성인지 관점의 에너지 전환사회를 여는 선택을 하도록 22대 총선 공약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3대 핵심 과제인 핵발전, 에너지전환, 성인지 관점의 기후대응에 대한 YWCA 정책을 명시하여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 한국은 2024년 2월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2기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 핵발전 밀집국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명목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표명하고 노후원전 18기의 수명연장과 신규원전 건설,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방폐물처리특별법, 막대한 SMR(소형모듈원전) 연구예산 책정,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허용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상시적 주민피해를 일으키며, 기후재난에 취약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시급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와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후위기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기후재난은 특히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와 같은 기초지표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정책이 전무하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의 통계자료 의무화 및 재난안전 관리정책 재수립, 기후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공공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마련과 시행이 시급하다.

제안 과제	내용
1. 핵발전 확대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추진 중단 • 방사성 오염수 방류문제 대응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 • 탈석탄법 제정 추진 • 에너지 복지 확대 정책 마련
3. 성평등 관점의 기후정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관점의 재난안전 관리정책 수립 • 기후정책 성별영향평가 시행 • 기후위기시대 공공돌봄 체계 구축

성평등 부문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한국YWCA는 전반적인 성평등 추진체계의 재정립과 성 차별이 만연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차별 개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철폐, 교육 시스템과 사회 전반에서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에 대한 정책수립을 요구한다.
- 한국은 문화와 정치, 산업 및 노동 구조 안에 뿌리 깊은 구조적 성차별이 있는 국가로, 다양한 국제적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정하고 2024년 현재까지 폐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령으로 정해져있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부정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 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및 학교 내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및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방 교육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대 성별임금격차 국가로 30% 이상의 성별 임금격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35-39세에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선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의 전반적인 성평등 문화 정착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 개선, 디지털 성범죄 철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권한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 부처의 종합적인 정책 도입 및 실행이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제안 과제	1.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 대표성 제고
	2. 노동환경 구조적 차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투명성 제고 • 여성 고용 환경 조성 및 (기업 내) 여성 대표성 확보 • 사회서비스 돌봄 일자리 및 여성 노동자 일자리 개선 •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 개선 및 지역소멸 대응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3. 디지털 성범죄 (기술 기반 젠더 폭력)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
	4.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시스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강화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한 시스템 확립

평화·통일 부문

평화문화 확산 및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로에 있다. 화해와 협력을 위한 대화가 아닌, 대립과 갈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측은 최근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였다. 남북관계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에 더해 국지적 군사 충돌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강화하고, 북·중·러는 미국의 고립과 압박 정책 속에서 대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실리, 균형 외교로 다극화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호응하며 한반도 갈등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 북측은 2018 북미정상회담의 불이행을 비판하며 강대강 정면승부 방향으로 군사력과 전쟁수행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한국은 공격적 무기가 대거 동원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무력화와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보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공격적 무기 개발과 도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예산을 삭감하여 민생 복지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전환해야 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 핫라인 개설을 통해 남북이 주도하는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 평화 구축 과정에 여성 보호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평화 통일 정책 관련 기구들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교육과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평화적 관점을 확장함이 필요하다.
- 평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 평등, 민주주의의 통합적 관점을 통한 평화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과 청년세대와 공직자들의 평화교육 의무화,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평화적 담론의 장과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향 여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과 요구를 반영한 지원 시스템 확충이 요구된다.

제안 과제	1.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추진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예산 삭감 및 공격적인 무기 개발과 도입 중단 • 접경지역 주민 안전보장 대책 마련 • 남북 간 대화채널 복원
	2. 평화 구축 과정의 여성 보호 및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성노예제 및 강제동원 문제 해결 • 평화구축 공적 기구 여성 참여율 50% 실현 • 평화·통일 교육과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제도화 방안 마련
	3. 평화교육과 사회 통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시민들의 평화·통일 사회적 담론의 장 구축 • 통합적 접근의 청소년 및 시민평화교육 확대 • 북향여성(탈북여성)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 마련

기후위기 대응은 뒷전인 채 '원전 최강국 건설'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온도 1.5도 돌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1.5도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1.5도 목표'란 금세기말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하는 목표를 말한다.

또한 화석연료 사용 급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늘자, 지구 평균온도는 계속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가뭄, 홍수, 폭염, 혹한, 산불 등 기후재난이 심각해졌다. 또 극지대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도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영구동토층에 얼어있는 메탄층이 녹아 나오면 지구온난화는 견잡을 수 없이 심각해져 '1.5도 목표'는 기후위기를 막을 '마지막 저항지점'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금세기말 지구 평균온도는 2.9도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의 BBC는 유럽연합 기후변화감시기구의 데이터를 인용해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1년간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이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사용하는 평균온도 상승은 10년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연평균 데이터만 놓고 보면 이미 1.5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특히 작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전 세계적 이상고온이 발생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추이를 보여 지구 기후가 '미지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는 보고서들까지 나온 상태이다.

118개국 재생에너지 3배 서약

이런 가운데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전 세계 118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증가,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서약에 서명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먼저 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하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작년 업데이트된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3배, 또다시 2050년까지 3배, 즉 2050년까지 9배로 늘리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2040년까지 95% 감축해야 한다. 당장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이고, 2040년에는 일부 천연가스 발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줄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3배 서약'의 내용은 작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사실상 모든 국가에 이들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당사국 총회 합의문에는 핵발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축이 어려운 영역'에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이룬다는 큰 틀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핵 발전을 옹호하는 국가들의 서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등 22개국은 '2050년까지 핵발전 용량을 3배 확대한다'라는 서약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는 재생에너지 3배 서약에 서명한 국가(118개국)에 비해 숫자도 적을뿐더러 대부분 현재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 심지어 현재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국가 수 30개국에도 이르지 못했다. 또한 목표 연도가 재생에너지

2030년에 비해 20년 늦은 2050년으로 잡혀 있다. 이는 부지 선정, 관련 법제도 마련,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 등 핵발전소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재생에너지에 비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핵발전소 건설 단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발전 확대에 따라 건설 비용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신규 핵발전소 3~6기 건설 계획 전망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정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미 건설 공사 재개를 결정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6기 정도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 핵발전소 부지에 모두 핵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5년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막아낸 경북 영덕의 경우에도 최근 영덕 원전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울산 울주군에선 신고리 5, 6호기(새울 3, 4호기) 인근 주민들이 신규 핵발전소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작년 경북 울진군은 GS에너지와 소형모듈형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핵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2035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 12기에 대해서 10년(혹은 20년)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어 신규 핵발전소 이외에도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별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핵발전과 재생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핵발전은 석탄이나 가스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하지만 생명에 치명적인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고,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2월 22일 '다시 뛰는 원전산업'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핵이나 석탄 발전에 비해 용량이 작다. 또 태양광은 대도시 한 가운데에도 지붕 등 유휴부지에 건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풍력의 경우에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와 같은 여건을 잘 활용하면 매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한때 우리나라보다 핵발전소가 많았던 독일이 2023년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50%를 돌파한 사례는 이제 재생에너지 전환도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력산업의 기준도 과거 대용량 원거리 발전소에서 소규모 분산형 발전소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발전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송전망과 전력시장 등 전력산업 전체가 바뀌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핵발전소는 출력 조절이 어려운 단점을 갖고 있다. 하루 종일 급변하는 전력수요, 일출·일몰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특성에 대응하기에는 핵발전은 너무 무거우며, 경직성이 큰 발전소이다.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들도 대규모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발전소 수명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 발전을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원전 최강국 건설' 정책에 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한다. 

가자전쟁의 미래 비평화가 뉴노멀이 된 세계

|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 교수

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팔레스타인 불법강점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역습 이래 가자와 서안에서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쉽게 끝날 것이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호언장담에도 그럴 가능성은 현재 없어 보인다. 가자전쟁은 이번이 5차 전쟁이다. 그 역사적 기원을 다 따지기엔 너무나 긴 이야기지만, '미국의 배후지원을 받는(US-backed)' 이스라엘 극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팔레스타인 불법강점과 무한 탄압이 이 모든 분쟁의 핵심에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가자전쟁이야말로 서아시아 안정과 평화의 중심고리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서아시아의 핵심 전략적 자산이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크라이나-러시아, 대만-중국 그리고 이스라엘-이란식의 작은 프락시와 패권 도전자의 그것이다. 미국의 영구 패권은 이들 프락시를 앞세운 초경쟁을 통해 확보될 운명이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역대 전략적 자산에서 전략적 부채가 되고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패권은 별거벗은 폭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역내 구성원에 대한 설득과 명분을 통한 일정한 정당성 확보가 언제나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극우정권에 대한 미국의 맹목적 지원은 아랍권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전 세계 20억 무슬림의 '마음'을 놓치는 지름길이다.

지난 1월 남아공에 의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제소에 따른 국제사법재판소 ICJ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지금 이 시간 또 다른 ICJ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건은 남아공 제소의 본안심리와 무관한 것이다. 2022년 유엔총회는 1967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의

군사적 점령의 적법성에 대한 ICJ의 '자문의견' 요청을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인 총 52개국이 발언을 신청한 상태로 이스라엘은 '노쇼' 방침을 결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향후 남아공의 집단학살건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멕시코, 칠레 등이 제소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건도 감당해야 한다. 그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 모든 국제법 절차는 이스라엘과 그 배후에 있는 미국 패권의 정당성 위기를 지속적으로 잠식할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이스라엘에

가자에 대한 제노사이드 방지 판시

지난 1월 ICJ는 집단학살죄를 묻는 남아공의 '잠정조치'(가처분) 청구 결정문 제 1항과 제2항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1. 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shall take all measures). 2.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군이 그 어떤 제노사이드도 자행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1월 말(26,792명)과 비교 ICJ 결정 한 달이 채 안된 2월 21일 기준 공식사망자는 29,708명(이중 어린이 12,400명)이다. 여기에 사실상 사망자인 약 7천 명의 실종자를 더해야 한다. 부상자 역시 7만 명이 훨씬 넘는다. 일설에 따르면 예컨대 전가족이 몰살당해 사망자를 신고할 사람 자체가 없는 경우처럼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2-3배는 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스라엘은 ICJ 결정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현재 전쟁은 이스라엘측이 가장 북쪽에서 가장 남쪽인 라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가자 전쟁의 사망자 수는 팔레스타인인이 30,365명, 이스라엘인이 약 1,139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도로 보는 이스라엘 가자 전쟁 : 북쪽 가자지구의 101만 주민에 대한 이주 명령이 내린 후 이스라엘군은 포위된 팔레스타인 거주 영토를 600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고 남쪽 지역을 비우라는 지시를 담은 지도를 온라인에 게시했다.

파로 토끼몰이하듯이 팔레스타인 난민을 몰은 뒤 이제 라파를 폭격중이다(위 지도 참조). 개전초 이스라엘과 미국의 목표는 이렇게 몰아서 230만 명을 라파아래 이집트의 시나이 사막으로 추방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은 개전초 하마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1,139명의 이스라엘인 죽음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저 중 상당수는 '포로가 되느니 죽이는 게 낫다'는 이스라엘의 한니발원칙에 따른 자국민학살이고 설사 하마스의 소

행이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군의 대응은 그 수단의 사용에 있어 현저히 불비례적이고 비대칭적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더라도 이 학살은 비무장의 어린이와 여성을 상대로 한 극단적 비정상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집단학살을 '정당한' 자위권행사로 보는 이스라엘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군의 집단학살을 전무후무한 유대인국가인 이스라엘국가가 가진 특수한 성격, 즉 첫째, “종말론적 병영국가” 둘째, 마찬가지로 세계 유일의 “정착민 식민주의 국가”에서 찾는 이도 있다. 기본적으로 아랍국가에 둘러싸인 일종의 ‘포위’ 멘탈리티 상태에서, 패배는 곧 존재론적 종말(‘아우슈비츠’)이라는 그런 독특한 정신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스스로 침략자(가해자)임에도 자신의 집단학살을 피해자의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를 ‘이스라엘했다israeled’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 가자전쟁은 이란을 정점으로 레바논남부에서의 헤즈볼라, 예멘의 안사르 알라정부군(후티), 시리아/이라크의 이슬람민병대로 연결된 이른바 ‘항쟁의 축’의 진앙지다. 이스라엘의 배후국가 미국이 러시아와 사실상 군사동맹을 그리고 중국과의 공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이란의 점증하는 영향력을 무력으로 제압할 전면전 역량과 의사를 가졌을 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마이란 전면전 직전 수준까지 이스라엘을 내세워 저강도전쟁을 관리하면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남는다.

전자의 경우 승산이 매우 불투명해서 과거 베트남이나 아프간전쟁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전략적 패배를 의미한다. 후자를 택하더라도 가장 큰 장애는 가자의 난민들이다. 이스라엘군에 의한 집단학살이 계속될 경우, 여기저기 산재한 전진배치된 미국의 역대 불법 군사기지 등은 헤즈볼라, 시리아/이라크 민병대 그리고 안사르 알라군의 영구적인 표적이 된다. 이 때 미국의 옵션은 전면전과 전략적 철수의 가능성 그 사이 어딘가로 향하게 된다. 세계는 이런 ‘비평화 Unpeace’가 이제 뉴노멀이다. ❖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가격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 안정희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과자 껍묵으로 한강을 횡단한 퍼포먼스를 기억하는가?

질소 과자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 2명은 국산 과자 60봉지를 엮어 만든 껍묵을 타고 한강을 횡단한다. 2014년 과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내용물을 줄여 가격을 인상한 '질소과자' 논란으로 과자업체들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업들의 눈속임 가격인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 미국연준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와 가스,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급증하였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노동력 감소 및 공급 부족 등으로 물가가 기록적으로 치솟았다. 많은 기업들은 원자재값, 임금 상승 등에 직면한 기업은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다. 그런데 기업은 가격 인상 사실을 소비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이에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릴 때마다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등장하게 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슈링크플레이션은 영국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이 2015년 만든 용어로, '줄어들다'라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패키지 다운사이징(package downsizing)'이라고도 한다. 즉,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자, 음료 용량이 줄어들거나, 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것, 소시지 수가 적어지는 등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

는 방식이다.

슈링크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한 유형은 스킵플레이션이다. 스킵플레이션은 가격은 동일하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줄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음료나 초콜릿의 과즙이나 카카오의 양을 줄인다든지, 치킨을 튀길 때 저품질 기름을 일정부분 섞어서 사용하거나, 즉석밥의 경우 수입쌀을 섞는 등 품질을 낮추어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직원수를 줄이거나 서비스 내용을 줄여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것도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두 가지 유형은 소비자가 원료 성분이나 함량을 일일이 따지지 못하니 같은 값에 질 떨어지는 제품을 팔아 소비자에게 가격인상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상식적으로 날개보다 번들로 구매했을 때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하는데, 번들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번들플레이션'도 확인되었다.

2023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이 참가격 내 73개 가공식품 품목(209개 상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품목(19개 상품)에서 용량축소가 확인됐다. 또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53개 상품의 경우 2개 품목(9개 상품)에서 용량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정책 사례

슈링크플레이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 이 처한 현실이다. 워싱턴포스트, ABC 뉴스, CBS 뉴스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이 일제히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보도하고, 미국·캐나다·영국 등 다른 나라 누리꾼들은 트위터 등 SNS에서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공유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 카르푸는 2023년 9월 가격 인하 없이 용량이 작아진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적은 스티커를 제품에 붙여 화제가 되었다. 펍시, 네슬레, 유니레버 같은 세계적 식품기업의 26개 제품을 사러 온 프랑스 소비자들에게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즉, 공급업자가 제품의 용량을 줄여서 사실상 가격을 올렸다고 큼직하게 써 붙인 것이다. 프랑스 대형 유통업체가 슈링크플레이션 기업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원가 상승 핑계로 터무니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기업에 가격을 낮추라고 압박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한 대형마트의 실천을 통해 기업이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캐나다와 독일도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브라질에서는 2023년부터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

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응 정책

한국YWCA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연대하여 활동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성명서를 통해 기업의 꼼수 전략이 만연하게 될 때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는 용량이나 함량 등 변화가 있을 때 이를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사업자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표시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식품의 용량이 바뀌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1372상담센터에 '꼼수가격인상 신고센터'를 열어 소비자 제보를 받았다.

정부는 단체들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개정안을 2024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 생활용품(단위가격 의무품목,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조사대상품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조사품목)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규격, 중요 원재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상품포장, 자사 홈페이지,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법 시행이후 이러한 눈속임 가격인상 행태가 바로 근절되지 않을 것이므로 소협과 소비자원의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사업도 실시하여 소비자 기만 행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가격 정보는 소비자가 합리적 구매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기업을 신뢰하여, 소비지속도를 높게 된다. 슈링크플레이션 근절을 통해 우리사회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나의 평화, 너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평화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장



2024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

한국YWCA와 일본YWCA의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YWCA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자 하는 취지로 1993년 처음 시작된 한·일YWCA청년협의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올해 21회차를 맞이했다. ‘청년의 일상 속 WPS(여성·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린 2024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는 2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됐다. 한국YWCA 청년참가자 10명, 일본YWCA 청년참가자 9명, 양국 활동가 7명(한국YWCA 활동가 5명, 일본YWCA 활동가 2명), 총 26명이 이번 협의회에 참가했다.

청년의 일상 속 WPS(여성·평화·안보)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는 WPS(여성·평화·안보) 주제 하에 3가지 ‘특강’(①WPS와 동아시아청년들, ②여성의 정치참여가 WPS에 미치는 영향, ③청년이 주도한 사회운동: 멸종반란 조직화 사례 공유)으로 구성되었다. 양국의 청년들이 준비한 ‘국가보고’, ‘활동보고’ 또한 진행됐다. ‘필드

트립’으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함께 특별히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여해 한국과 일본 청년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모았다. ‘액션플랜 수립’ 시간에는 협의회 이후, 동아시아 여성으로서 그리고 YWCA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연대해야 할지에 대해 나눴다.

한국과 일본의 페미니즘과 젠더갈등1일차는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 조경희 부교수의 강의로 시작됐다. WPS 담론에 대해 학습하고, WPS에 따라 비평화·불평등의 구조를 평화·정의의 구조로 전환하는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과정을 실현하는 데 젠더 관점과 젠더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배웠다. 조경희 부교수는 ‘평등과 평화의 딜레마’를 다루며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한 참여인지?’에 대해 ‘평등의 이름으로 폭력을 가담하는 것은 평화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이며,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여성, 평화, 안보를 병렬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에서 평화와 안보를 볼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을 ‘남성 중심 구조에 여성들을 끌어들이는 평등이 아니라 평화 페미니즘에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성 모색’해야 함을 전했다. 더불어 WPS와 교차성으로 ‘WPS 결의안은 교차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특히 폭력에 취약한 일부 집단(소녀, 난민 등)을 시사함을 이야기 하며 평화 구축 과정에서 교차성의 관점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나눴다. 강의 이후 곧바로 국가보고가 이어졌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페미니즘 현황과 사례를 공유했다. 각국의 사례는 다양하고 달랐지만, 공통된 문제점으로 ‘성고정관념’이 언급됐고, 페미니스트로의 정체성을 밝혔을 때 겪는 어려움과 사회적 분위기에 공감했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WPS(여성·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김은경 위원장은 2일차 강의에서 ‘50:50 남녀동수로 정치인이 구성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상상하는 시간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젠더 역할, 가부장제 해체’, ‘성별 임금격차 축소’,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답변을 나눴다. 김은경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국제법은 여성의 공적, 정치적 생활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정부를 대표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임을 설명했다. 이어서 여성들이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경우 그 결과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으며, 여성이 참여한 협상의 경우 최종 합의문에 젠더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음 등 ‘성평등은 그 자체로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더 잘 예측하는 요인’이기도 함을 이야기 하며, WP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강의했다. 참가자들은 ‘일상적 폭력을 없애는 것이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것에도 영향을 주고,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곧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눴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

마지막 날에는 한국과 일본의 YWCA 청년 조직 현황과 활동에 대해 공유했다. 한국YWCA 청년운동에는 부천



조경희 교수가 <WPS와 동아시아 청년들>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YWCA 박지인 청년이, 일본YWCA 청년운동에는 하타 마이코(畠舞衣子) 활동가가 보고했다. 양국의 발표자들은 청년을 둘러싼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과 청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언급했고,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했다. 활동보고에 이어 멸종반란한국, 별새 활동가의 특강이 이어졌다. 별새 활동가는 ‘멸종반란’ 조직의 소개와 조직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멸종반란은 ‘멸종의 반란(Extinction Rebellion, 줄여서 엑스알)’으로 기후 위기로 인해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항하는, ‘사랑과 분노로 기후생태정의운동을 하는 곳이다. 별새 활동가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 운동의 중요성’이란 주제에 대해 사회운동까지 주도해야 하는 청년의 부담감에 쓸쓸함을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요구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치적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문에 목을 묶고 벌인 ‘2025 탄소중립’ 시위를 소개하며, ‘직접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멸종반란의 직접행동은 가장 중요한 활동의 축으로, 어떠한 불의가 일어나는 곳에 직접 가서 그것을 만든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이다.

필드트립: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수요시위

한·일YWCA청년협의회 2일차에 한국과 일본 참가자들이 필드트립을 떠났다. 가장 먼저 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곳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여전히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된 미얀마 내전에서는 군인-민간인-남자-여자-노인-어린이 할 것 없이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이 꺼지기도 전, 2023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내전 및 국가 간 전쟁은 그 횡수와 강도, 그리고 지속에 있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1월, 유엔은 전 세계 폭력 분쟁 수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 발표했다. 전쟁은 더 이상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이며,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간다. '세계는 전쟁 중(A World at War)'이다.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됨에 따라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또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성폭력을 전쟁의 무기, 군사 전술로 사용하는 참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전시 성폭력도 역사 속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다. 명백한 전쟁범죄를 전쟁에 수반되는 필요악으로 치부하고 가해자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사회,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전시 성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 1635차 수요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1635번이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수도 없이 외쳐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다. 아니 이제는 침묵만이 아니라 모욕, 조롱, 역사적 왜곡이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침묵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 피해자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상의 자유'를 근거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백하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한 왜곡을 사상의 자유로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나마 위기가 되는 것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지난 30여 년간 '정의'를 외쳐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가 지난 11월, "일본의 국가면제를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또다시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으며 법정에 나오지도 않은 것은 물론, 소장의 송달조차 거부한 채 오히려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 공격했다. 현 정부 또한 그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양보안을 관철시키려는 저자세로 일관하며, 국가적 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한·일 정부 모두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역사를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하다.

우리는 반복된 침묵과 외면 속에서 비통함을 느낀다. 과거의 잔혹한 행위와 폭력에 대한 책임인정, 진정한 사죄, 정의로운 해결 없이 결단코 평화로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과거는 침묵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디지만 언젠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지난 과거가 아닌 지금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재이자, 앞으로의 평화를 위해 외쳐야 할 미래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평화와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외침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하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라하나, 역사 부정 세력들은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

2024년 2월 14일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와 한국YWCA연합회 일동



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앞, 나비메시지를 부착하는 일본 참가자 ②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연대발언 중인 일본YWCA 청년 참가자 '미카 미나미' ③ 수요시위에 참여한 한국YWCA연합회 활동가와 한·일YWCA청년협의회 참가자들 ④ '문화교류의 밤'에 조별로 서울 투어를 떠난 한·일YWCA청년들

둘러보았다. 참가자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시성폭력 문제에 대해 관심 가져야 하고, 전쟁과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해 연대하고 행동해야 함을 배웠다. 박물관에서 곧바로 두 번째 필드트립 장소로 이동했다.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하고,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한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한·일YWCA청년협의회 청년참가자들이 참여하여 자리를 채웠다. Y-틴 김민선 청소년, 수원YWCA 황인혁 청년과 일본YWCA 청년 참가자 미카 미나미와 에리 카와고에가 연대발언을 진행했다. 진실과 정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민들레는 민들레다' 노래를 함께 불렀고, 성명문을 낭독했다. 사후평가서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시위'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을만큼 참가자들은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가슴 속 깊이 느껴보는 울림의 시간이었다.

나의 평화, 너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평화

한·일YWCA청년협의회회의의 여는 의식(Opening Ceremony)으로 '나에게 평화란 어떤 것인가?' 한 단어로 작성하여 한 쪽 벽면에 부착했다. 이것은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며 진행한 닫는의식(Closing Ceremony)으로 이어졌다. 사전에 번역해 둔 평화의 단어들을 보고 '여성·평화·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시

간을 가졌다. 그 결과 여러 선택을 받은 단어로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互いの心に寄り添うこと)', '안전한 공간(あんぜんなスペース)', '약자가 살기 좋은 사회(弱者が住みやすい社会)'가 언급됐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최고 많은 선택을 받은 단어는 '사랑하는 것(愛すること)'이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마음을 맞추는 것, 서로의 이야기가 충분히 발화할 수 있도록 서로가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 그리고 교차성의 관점과 WPS 개념을 통해 사회 안에서 누가 소외받고 있는지, 우리가 연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임을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한·일YWCA 청년, 우리는 계속 연대한다

WPS(여성·평화·안보)를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뤄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미시적 차원인 우리의 일상에서 지켜내는 것도 참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한국과 일본의 YWCA 청년들은 이번 한·일YWCA청년협의회 2박 3일의 일정을 통해 WPS를 달성할 한명 한명의 활동가로 살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땀다. 수요시위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합쳐졌을 때 한명이 외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만들어냈음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함께 모여 '연대'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강력한 소리가 될 것을 희망한다. ♡

모두를 생각하는 중점운동, “기후위기와 생태계”



이은혜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한국YWCA의 청소년 Y-틴이 1월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4 Y-틴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2024 Y-틴 전국협의회는 Y-틴의 2023년도 활동을 정리하고 2024년 중점 운동과 그 운동을 이끌 임원을 선출하는 행사로 이를 위해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서울,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창원, 청주, 충주 등 17개 회원YWCA의 Y-틴 활동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여는 예배는 신소울(북부지역 총무)이 이끌었고 신소해(서울YWCA)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전하늘(북부지역 회장)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눔을 진행하며 Y-틴에게 주어진 2024년 한 해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원영희 회장은 여는 예배 후, Y-틴의 주체적인 운동 진행을 칭찬하고 Y-틴을 ‘사회 이슈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생각하며, 나누고 행동하는 젊음의 가치를 열심히 실현해 내는 청소년’이라 정의했다.

Y-틴은 전국연대망 형성을 위해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다. 기후위기 시대를 고려한 요리 맞추기 게임, 협동력을 요구하는 조별 릴레이 게임, 서로의 이름과 TMI를 공유하는 이름 채우기 게임까지 이선우(대전YWCA)와 신민서(전국협의회 총무)의 진행 아래 Y-틴은 오랜만에 만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새롭게 만난 서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넸다.

레크리에이션 후에는 본격적인 중점운동 시간이 진행됐다. 먼저 이은우(중부지역 회장)가 2023년 중점운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끌었다. Y-틴은 자신이 속한 지역 혹은 중앙임원 활동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고 공유했다. 특별히 중앙임원이 소개한 포스터는 가장 많은 Y-틴의 찬사를 받았다. 나아가 Y-틴은 2023년이 자신에게 남긴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윤지(부산YWCA)는 ‘인권존중의 마음’, 정지한(목포YWCA)은 ‘마음을 울리는 열정’, 신소해(서울YWCA)는 ‘하

면 된다는 의지와 희망’을 Y-틴이 준 한해의 선물로 꼽았다.

‘중점운동’ 시간은 2024년 운동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신민서(전국협의회 총무)가 이끌었다. Y-틴은 사전설문을 바탕으로 중앙임원들이 준비한 2024년 중점운동(안) - ‘기후와 환경’ 관련 기사와 사진을 보며 논의했다. 나아가 본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기후와 환경의 접점을 정리하며 2024년도 진행할 운동계획을 세웠다.

진행은 강지수(서부지역 총무)와 김환희(전주YWCA)가 맡았다. 조 이름 짜기, AI 노래 가사 듣고 맞추기, 이면지 탐 썰기, 초성 게임, 명대사 보고 제목 맞추기까지 Y-틴은 서로 협력하며 즐겁게 첫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국협의회 회의로 둘째 날 일정이 시작됐다. 본 회의를 통해 Y-틴은 2024년도 Y-틴 중점운동을 ‘기후위기와 생태계’로, 슬로건을 ‘녹색 생각, 지구를 지키는 힘’으로 채택했다. 기후위기에 심각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Y-틴은 지난해, ‘기후와 인권’으로 활동하며 인간에 초점을 맞춰 기후위기를

살펴보았다면, 24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 생태계 전체를 살펴 기후위기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협의회 회장으로는 이은우(대전YWCA)가, 총무로는 강경화(대구YWCA)가 선출됐다. 동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김여진(부산YWCA), 곽은빈(마산YWCA)이, 중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이한음(대전YWCA), 서가은(충주YWCA)이, 서부지역 회장, 총무로는 김민선(전주YWCA), 오예은(순천YWCA)이 선출됐다. 당일 임원단 선출이 어려웠던 북부지역의 회장과 총무는 3월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2024 Y-틴 전국협의회’는 이·취임식으로 마무리됐다. 2024년 중앙임원들은 ‘행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담을 것’을 서약하고 포부를 밝혔다. 2023년 중앙임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2023년도 활동을 회고하고, 2024년 중앙임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Y-틴 전국협의회에서 Y-틴은 이제껏 그랬듯 서로에게 기댄 채,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세웠다. 그 선택에 책임지기 위해 노력할 Y-틴의 행보를 기대한다.

이은우
Y-틴 회장
(사)대전YWCA



저는 작년 중부지역회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1년간 활동하며 그전에 생각만 했고 기회가 없었던 캠페인이나 여러 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교류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전국협의회에 처음 참석해 발표를 맡아 머릿속이 하얘지고 떨려 하던 저는, 이제 자신감을 갖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Y-틴은 저의 생각을,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Y-틴 회장은 이런 경험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Y-틴 서로를 믿으며 함께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 Y-틴 활동이 놀이터이자 편안함이었다면 것처럼 개인에 있어 Y-틴 활동이 의미가 되고 ‘Y-틴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들은 노력하고 배워나가며 우리이기에 해낼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를 일들로 2024년도가 정말 기대됩니다!

강경화
Y-틴 총무
(사)대구YWCA



저는 2023년 9-16 기후행진을 준비하며 중앙임원 분들과 전국 Y-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중앙임원 분들이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느껴 저도 꼭 그러한 중앙임원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께 재밌고 유쾌하며 책임감 넘치는 총무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2024년이 끝날 갈 때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고 여러분과 열심히 소통하는 총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처음 Y-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Y-틴 활동은 저희 청소년들 스스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저는 2023년 학교 친구의 추천으로 대구에 가입하게 되었고, 대구Y에서도 총무를 맡으며 2023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맡은 일을 충실히 할 것이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과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Y-틴 총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WCA 기후정의 아카데미’ 전국운동 주제 채택

| 손지수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1월 20일(토)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2024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2020년 이후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첫 전국협의회 총회였다. 대전, 부천, 서울, 수원, 안양과천군포의왕, 전주에서 모인 회원YWCA 정대표 10명, 방청 1명, 회원YWCA 실무자 2명, 연합회 실무자 3명 총 16명이 참여했다.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운영 위원들은 일찍부터 연합회에 모여 공간을 꾸미고, 직접 준비한 비건 디저트로 청년들을 맞이했다. 총회를 시작하기 앞서 참가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으로 2023년 한해를 돌아보고, 2024년의 목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이름을 익히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번 전국협의회에서는 특별히 한국YWCA연합회 실무자가 청년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특강이 준비됐다. 1부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김수진 팀장이 ‘기독교청년운동’에 대해 강의했다. 김수진 팀장은 “YWCA 청년운동은 YWCA 그 이름 자체로 기독교청년운동이며, YWCA 목적문에도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 정의·


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세상)를 건설하는 운동이며 YWCA 청년운동을 실행해나갈 때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나의 식탁과 공동체에 그 이웃을 초대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2부는 한국YWCA연합회 시민운동국 이한빛 간사가 ‘YWCA 중점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한빛 간사는 한국YWCA운동 100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여성단체로서 우리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2024-2025 운동정책으로 탈핵생명기후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청소년운동의 전반적인 흐름과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YWCA 청년들 또한 YWCA 회원으로서 중점운동에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서다미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가 시작됐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2023년 대학·청년YWCA에도 희망은 있었

다. 많은 회원YWCA가 회원 모집과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천YWCA에서는 새롭게 대학·청년YWCA가 출범하기도 했다. 총회의 첫 순서인 전 회의록 낭독을 통과하고, 김수진 팀장이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활동보고를 진행했다. 2023년 전국운동주제에 따른 ‘에코피크닉’ 활동을 쇼츠 영상으로 함께 보고, 2023년 대학·청년YWCA전국회원대회 ‘에코캠프’가 참가자 미달로 취소된 점을 회원들에게 공유했다. 계속해서 청년포럼, 기독교청년 기후정의학교, 흥청망청 프로젝트, 로컬프렌들리 활동 등 2023년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활동보고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안건토의의 첫 순서로 2024년을 이룰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임원 선출을 진행했다. 회장으로는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이에림 청년이, 기획국장으로는 부천YWCA 박지인 청년이, 소통국장으로는 대전YWCA 김윤희 청년이 선출됐다. 이어 두 번째 안건인 청년법인이사(청년부회장), 청년공천위원 추천의 건에서 청년부회장으로는 전주Y 서다미 청년이, 청년공천위원으로는 부천YWCA 박지인 청년이 추천됐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전국운동 주제 채택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23년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과 기획국장이 전국운동주제 제안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가 물리적인 환경 문제와 정치·윤리·사회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불평등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생명·평화·정의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YWCA 청년들은 기후위기가 함축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잘 알고 난 후에 기후정의를 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YWCA 기후정의 아카데미’로 2024년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운동주제를 채택했다.

2023년 공식이었던 소통국장이 채워지며 2024년에는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모든 임원이 선출됐다. 팬데믹이 지나고 새롭게 모인 회원들과 선출된 임원들의 반짝이는 눈에서 다시 한번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의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2024년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하는 첫 운영위원회는 3월 30일(토) 한국YWCA연합회에서 진행된다. 

2023년의 활동은 저에게 ‘성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해온 YWCA는 이제 저에게 당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당연함에서 벗어나 제가 왜 이제껏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청년을 유입시킬 방법을 찾으며 청년들이 추구하는 사회운동의 양상을 알게 되었고, 대학·청년Y가 외부 청년에게 많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을 하며 청년의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고,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YWCA에서 활동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연대감이었습니다. YWCA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여성 청년들이 모여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주었습니다. 한 번의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지속해서 대화를 나누는 YWCA의 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고자 하는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홍보와 청년 발굴에 힘쓰고자

이 예 림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회장

2022-2023년 공천위원으로 활동하며 YWCA에서 청년의 자리가 커지는 것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 공천위원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책임감을 알 수 있었습니다. YWCA에 저의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더 큰 소속감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YWCA의 정체성을 더 키워, 청년들이 YWCA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작정 홍보를 하기보다 내부에서부터 YWCA의 정체성과 운동을 알리고 목적문에 맞는 활동을 함께 꿈꾸고자 합니다. 또 2024년에는 홍보와 청년 발굴에 힘쓰고자 합니다. 회원들이 계속 함께하고픈 YWCA의 모습으로 끝나가며, 청년들의 주체성과 연대를 더욱 키우고 싶습니다. 2024년에는 배우는 활동을 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타인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기후위기가 함축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성의 문제를 잘 알아갈 것입니다. 탈핵을 넘어 기후 정의를 위해 기후위기를 잘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Green 내일, 키우자 그린리더!

1 글·편집실

한국YWCA연합회는 2월 3일(토), 서울 명동 소재 페이지명 동에서 청소년 대안운동으로 세운 '키다리학교'의 2023년도 활동을 정리하는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행사를 열었다. 오전 11시부터 등록이 시작되는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멀리 순천과 목포, 부산 등지에서 새벽부터 나선 키다리들의 설렘으로 첫 시간부터 밝은 기운이 가득했다.

등록 이후에는 페이지명동 맞은편에서 따뜻한 국밥과 온 국수로 몸을 녹였다. 이어지는 여는 예배 순서는 대전YWCA 키다리 청소년이 여는 기도로 "오늘의 활동 나눔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새로운 2024년을 기획하는 에너지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해 달라"고 행사를 열었다.

'우리, 친해져요' 레크리에이션 시간은 순천YWCA와 목포YWCA가 순서를 맡아 자칫 어색해지기 쉬운 활동나눔에 마중물을 부어 주었다. '키다리학교 활동보고' 는 오늘 행사의 핵심으로 이날 참석한 7개 회원YWCA의 발표자가 각기 10분씩 발표하였는데, 회원YWCA 활동 발표를 들으며 궁금한 점과 칭찬하고 싶은 점을 포스트잇에 각각 적어 모든 키다리가

나누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대전YWCA 키다리학교는 '꿈을 UP! GO!'란 제목으로 진로 탐색을, 목포YWCA 키다리학교는 환경운동을 주제로 '우리가 Green 내일'의 활동을 나누며 많은 그린리더를 양성했음을 밝혔다. 부산YWCA키다리학교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양한 환경보존 활동과 부산923기후정의행진 참여 등을, 순천YWCA 키다리학교는 '지·행·우·행(지구행동, 우리 행복)' 제목으로 기후와 인권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활동 나눔을 보고했다.

안산YWCA 키다리학교는 '지키자!(지구를 지키고 아끼라)'란 이름으로 환경활동을 펼쳤다. 제로 웨이스트샵 견학과 환경교육 참여, 샴푸 바와 페트병 무드등 만들기 등을 하며 나눔 소감을 나누었다. 창원YWCA는 '키우자 Y다운 리더'란 이름으로 청소년 주체성 함양과 기후운동 주제로 한 팀별 활동나눔 등을 진행하였다.

청주YWCA는 '와이즐리 Talk! Talk!(와이)의 '즐거움 리더'란 이름으로 기후와 진로를 주제로 활동하였음을 보고했다. 1년의 활동을 정리하는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속에서 스



활동소감

강희성 (사)창원YWCA 키다리학교


2023년 창원YWCA 키다리학교 활동을 하게 되었다. 나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환경에 대한 책들과 영상들을 찾아보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환경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키다리학교를 추천해 주셨다. 키다리학교 첫 만남에는 잘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서 어색했다. 그리고 내가 키다리학교 활동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의 걱정과는 다르게 키다리학교 활동을 하면서 활동에 재미를 느끼며 잘 따라갔고 2024년에도 하게 되었다. 키다리학교를 1년 정도 해보니 많은 친구와 친해졌고 어떤 것들이 환경을 더 나쁘게 하는지 더 좋아지게 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을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영상 제작하는 방법과 편집하는 방법

을 배웠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과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또 키다리학교를 통해 전기를 절약하는 습관도 생겼다. 키다리학교는 나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환경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 세상에 쓰레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쓰레기를 줄는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4년에는 키다리학교에서만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스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접 줄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키다리학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스로는 느끼지 못했지만 지켜보는 키다리는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하게 성장한 키다리 청소년들의 활동이 참가자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마지막 순서는 '우리 키다리 칭찬하기' 시간으로 소속 키다리학교를 스스로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칭찬과 격려를 담아 '상장만들기'를 회원YWCA별로 진행하였는데 각 상장 문구마다 담긴 칭찬 이상의 성찰과 큰 격려가 키다리들에게 성장의 즐거움과 활동 나눔의 기쁨을 더해 주었다.

키다리학교의 특징은 '주체성'이다. 이번 '키다리학교 활동 나눔' 역시 키다리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제와 내용을 기획하

여 당일 행사를 진행했다. 창원YWCA와 순천YWCA가 전국 키다리학교의 연대망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고, 청주YWCA에서 1년의 활동을 점검하는 '보고 활동'의 사회를 맡았다. 안산YWCA에서는 키다리 활동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나누는 '소감 나눔'을, 부산YWCA에서는 자신이 속한 YWCA 키다리학교팀에게 직접 상을 수여하는 '우리키다리 칭찬하기'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대전YWCA와 목포YWCA에서는 각각 여는 예배와 닫는 예배의 인도를 맡았다.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사)한국YWCA연합회 부장

2024 YWCA 신입회장교육이 22(수)부터 22(목)까지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YWCA 신입회장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운동과 운영정책, 회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총 15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거제, 광양, 남양주, 남원, 대전, 마산, 서귀포, 순천, 양산, 여수, 울산, 익산, 제주, 천안, 하남Y)이 참석하였다.

여는 예배로 시작한 교육은 YWCA 존재와 활동의 근간이 되는 ‘YWCA 목적과 사명’(장운재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을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YWCA와 회장을 부르셨음을 강조했다.


‘YWCA 회장의 역할과 사명’(원영희 연합회 회장)에서 원영희 회장은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온 여정을 공유하며 YWCA 목적은 비로소 행동으로 실천할 때 완성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는 ‘재구조화 경과와 YWCA 운동·운영정책’ 강의에서 YWCA가 재구조화를 시작하게 된 내·외부 배경과 49개 회원Y가 법인화를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공유하고 2024~2025 운동·운영정책을 통해 YWCA가 지역사회 변화에 이끄는 기독교여성시민운동단체로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와 워크숍에서 이명신 소장은 YWCA 사명에 따라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는 기제가 바로 거버넌스임을 설명



하며 투명성, 민주성, 책무성을 갖춘 건강한 조직 운영을 위한 회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입회장들은 이사회 자가평가와 이사회 역할과 책임 워크시트를 작성해보면서 이사회 유형을 점검해보면서 거버넌스 리더십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시간에 이어진 ‘회장 네트워킹과 나눔’에서는 95개 논제를 읽고 회장으로서 다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신입회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 “나와 Y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는 회장이 되겠다”, “섬기는 회장이 되겠다”,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잘 해나가는 회장이 되겠다” 등 회장으로서 헌신할 것을 나누었다. 무엇보다 회장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신입회장 모두의 고백 나눔이 있었다.

‘정의가 다스리는 평화와 생명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YWCA 여정에 가까이 동참하고 헌신을 다짐하신 신입회장들이 계시기에 어둠과 위기의 시대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책을 매개로,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간다

| 소연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성장을 하자, 사회의 주체로 성장하자, 이거인 것 같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확인하기도 하고 새롭게 구성해 가지 않나. 월간와이북클럽은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슬비가 겨울 추위를 조용하게 씻어내던 2월 어느 날, 부천시 원미로에 있는 부천YWCA 사무실을 찾았다. 부천YWCA 총회에 참석했던 연합회 활동가가 부천YWCA에서 운영하는 책모임 ‘월간와이북클럽’을 소개받고, 그 책모임에 흠뻑 매료돼 그곳을 연합회 소식지에 ‘반드시’ 소개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추천해서다. 수많은 책모임이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운영 중단되는 걸 수없이 목격했던지라 1년 넘게 왕성하게 운영되는, 게다가 해외 여러 여성작가들의 소설을 읽는

책모임이라는 것에 호기심이 일었다. 곧바로 모임을 운영하는 박지인 부천YWCA 대학·청년 회원(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기획국장)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고 부천으로 향했다.

내 조그망던 세계가 확장돼갔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는 모임 운영자로서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하고, 모임을 잘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내가 모임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갔다.”

월간와이북클럽은 2023년 1월에 시작됐다. 프랑스 작가 아 니 에르노가 2022년 10월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임행심 부천YWCA 사무총장은 대학·청



부천YWCA 대학·청년 회원인 박지인, 박보근 자매. 박지인 회원은 월간와이북클럽 운영자이다.





매월 월간와이북클럽이 열리는 곳. 빼곡한 책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지는 사무실 구석자리. 8명의 청장년층 비회원들이 책을 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년 회원인 박지인과 양기훈에게 여성 작가들의 책을 읽는 책모임을 운영해보자고 제안했다. 한국YWCA의 중점운동 중 하나인 성평등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해보자고 했다. 박지인 회원과 양기훈 회원은 임 사무총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모임 운영 방식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했다. 회원·비회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임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발제문을 준비하고, 발제문은 두 회원이 번갈아가며 작성하기로 했다. 도서는 문학작품으로 한정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접근하고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임행심 사무총장과 박지인 회원, 양기훈 회원은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국내외 여성작가들의 책을 읽으며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낸 사회 이야기를 살펴보고 우리 안의 이야기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다.

박지인 회원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임을 준비했지만, 모임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도 컸다. 그런데 모임이 시작되니, 운영자가 끌고가는 모임이 아닌 참석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으로 순탄하게 굴러갔다. 박지인 회원과 양기훈 회원이 발제문을 통해 책을 소개하고 이야기 거리를 던져주면, 임행심 사무총장이 모임을 중간 중간 정리해갔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책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피력했다.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인식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사회를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런데 책모임 덕분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알게 됐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조그맣던 세계가 되게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책모임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박지인 회원의 표정이 한껏 상기돼갔다.

‘공부’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월간와이북클럽은 1년 동안 해외 여성작가의 소설을 다뤘다. 아니 에르노(프랑스)를 비롯해 버지니아 울프(영국), 엘리프 사팍(튀르키예), 실비 제르맹(프랑스), 류드밀라 울리츠카(러시아)의 작품을 읽었다. 모임 구성원들은 이중 한 권을 골라 2023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월간와이북클럽 2023년 올해의 책은 엘리프 사팍의 『이브의 세 딸』이다. 박지인 회원은 이브의 세 딸이 이제까지 책모임에서 다룬 책 중 가장 쉽게 읽히기도 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책모임 구성원들이 많이 공감해서인 것 같으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인 회원 또한 발제문을 작성할 때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작성했다.

사람들이 보는 그녀의 이미지와 그녀 스스로 느끼는 자아


인식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렇다 보니, 이전 페리도 자기 인생의 어디까지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기대치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중략) 사실 그녀는 끝없이 자신을 검열했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여자였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존중받으며 살던 만 서른다섯 살 여자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어느 평범한 날에 예상치 못했던 영혼의 공백과 마주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 엘리프 사팍의 『이브의 세 딸』 중에서

문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봉인해제하고 각자 안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게 하지만, 박지인 회원을 비롯한 모임 운영자들은 책모임이 ‘공부’의 틀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월간와이북클럽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는 함께 읽는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성 중심 담론이 팽배한 사회에서 소외되는 여성들의 시선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선을 접하

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게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기 때문이다.

모임에는 주로 청년 4명, 중년 4명 총 8명이 참석한다. 이중 한 명은 부천YWCA 비회원인데, 책모임이 좋아 꾸준히 참석 중이다. “모임 마지막에 참석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다. 책모임 덕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공부도 하게 돼서 뜻 깊고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 사실 여성작가 작품을 공부하면서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는 사람이 모인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 내게는 되게 재미있는 활동이다.”

박지인 회원은 북클럽 활동의 동력으로 ‘성장’을 이야기했다. 와이북클럽은 여러 의미에서 각자가 원하는 성장을 원하는 이들이 모인 곳인 것 같다고 했다. 이는 비단 박지인 회원만의 생각은 아닌 듯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같은 구성원이 꾸준히 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박지인 클럽장이 추천하는 책

 <p>『이브의 세 딸』 엘리프 사팍</p> <p>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허함을 마주하게 된 중년 여성 페리가, 과거의 삶을 되짚어보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 나는 어떤 존재일까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는 한 청년으로서, 계속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페리에게 많이 공감했다.</p>	 <p>『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p> <p>탈식민 문학의 근거에 에드워드 사이드의 『문화와 제국주의』가 존재한다면, 여성 문학의 근거에는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1929년 남성에 의해 왜곡된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여성 스스로가 ‘여성’을 이야기하고 그려내야 함을 강조했던 버지니아 울프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p>	 <p>『한 여자』 아니 에르노</p> <p>『한 여자』는 아니 에르노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작품 속 주인공은 꿈이 많았던 소녀였고, 배움을 갈망했던 학생이었고, 가난한 노동자였고,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다. 책을 읽는 동안 ‘한 여자의 삶을 추적하며 여성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되고, 이로 인해 겪게 되는 거대한 일상적·사회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고민해보게 됐다.</p>
--	--	---

지역여성청년을 응원하는 '흥청망청'은 2024년에도 계속된다

| 손지수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

‘흥(興)해도 청년, 망(望)해도 청년’은 2022년 한국YWCA 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지원공모사업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흥하도록 ‘응원’하고, 청년들이 소망하는 세상을 이루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시작됐다.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지속하고자 2023년에도 흥청망청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여성활동가로서 주체성과 비전을 가진 후보자를 발굴해 YWCA와 콜라보 할 수 있는 YWCA 외부 청년들을 물색했고, 지역청년여성활동가 4팀의 프로젝트 지원서를 받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팀을 선발했다. 올해 선발된 팀은 2022년 기존팀 1팀, 2023년 신규 1팀으로 구성됐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각 500만원을 지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2년 연속 지원을 받게 된 ‘복두칠성’ 팀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연극놀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다양한 전시와 낭독극, 청소년극을 기획했다. 청소년 워크숍을 진행하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두 명의 극작가가 ‘복두칠성 프로젝트 part2 : 연극으로 비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대본을 쓰고, 전문 배우들과 함께 이틀간 낭독극을 올렸다. 공연 첫날에는 일반인을 초청해서 극을 올리고, 두 번째 날에는 ‘틴즈데이’라는 이

름으로 청소년 워크숍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초청했다. 같은 공간에서 상시로 이루어진 전시는 녹음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고 관객들이 편지를 써주고, 각자가 생각하는 신체에 대한 콤플렉스와 자부심을 표현하는 등 사물을 통해 본질적인 신체기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획했다. 박지원 복두칠성 대표는 미숙했던 작년과 달리 그 사이 경력을 쌓고 능숙해진 모습으로 연극을 펼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3년 신규 팀인 ‘TTL(THROUGH THE LENSE)’팀은 렌즈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발굴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대전, 군산에서 활동하는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군산을 배경으로 한 여성 단편영화 ‘선재’를 제작했다. 영화 ‘선재’는 오배송된 택배처럼 만난 두 여자가 말장난 같은 며칠을 보내는 내용의 단편 영화다. 김나은 TTL 대표는 대학교 동기들이 모인 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여성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서로를 응원하고 있던 흥청망청 프로젝트를 계기로 함께 꿈꾸고 있던 일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 중 가장 어려웠던 장소 섭외 역시 한국YWCA 연합회의 청년지원사업이라고 밝히니 흔쾌히 해결되었다고 말하며 이런 것이 YWCA의 힘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TTL



복두칠성 박지원 대표



TTL 김나은 대표



다른 지원사업과 흥청망청 사업의 다른 점은?

박지원(복두칠성)
참여자들에게 주는 자율성이 높다. 다른 지원사업들은 어쩔 수 없는 제약이 있는데 흥청망청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연극을 만들 수 있었다.

김나은(TTL)
증빙이 쉽다는 것이다. 영화라는 것은 인건비와 식비, 부자재 등이 많이 드는데 일반적인 지원사업에서는 이 부분들이 증빙이 어렵다. 흥청망청에서는 기부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청년들을 믿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

YWCA에 바라는 점

박지원(복두칠성)
청년예술가로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흥청망청처럼 청년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해 주면 정말 좋겠다.

김나은(TTL)
이런 지원이 많아져서 제2의 ‘복두칠성’과 ‘TTL’이 나오면 좋겠다.

여성활동가로서의 이후 목표는?

박지원(복두칠성)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그들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김나은(TTL)
생각한 것을 원동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다.

- 흥(興)해도 청년, 망(望)해도 청년 ‘흥청망청’-ING
2022년 한국YWCA연합회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YWCA 목적성에 맞는 청년들의 도전과 활동을 지원하는 ‘흥청망청-YWCA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사업이 2024년에도 지역성청년활동가 지원으로 계속됩니다.
- 흥청망청 프로젝트 무통장입금 계좌 : 농협중앙회 301-0193-6894-41

팀이 제작한 영화 ‘선재’는 올해 전국 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다.

2024년 1월 13일(토)에는 한국YWCA연합회 A SPACE에서 ‘흥청망청 최종보고회’를 통해 수혜자와 후원자, 2022년 참가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프로젝트 결과공유와 연속후원을 도모했다. 1부에서는 두 팀의 활동보고와 완성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함께 관람했고, 2부에서는 케이터링을 나누며 참석자들끼리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2024년 후원금 모금을 위한 킥오프를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했다. 흥청망청 프로젝트 선정부터 프로젝트 과정 참여와 최종보고회까지 함께한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은 최종보고회에서 “2023년에는 지역의 여성청년활동가들을 찾아서 지속

가능하도록 연대하고 활동을 확장하고자 2팀만을 선정해서 지원했다”라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여성청년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을 도모했다.

2023년은 흥청망청 자체 스토리와 과정, 각 팀별 과정에 대한 스토리 전체를 영상으로 아카이빙 했으며, 아카이빙 영상촬영 팀 역시 지역여성청년 팀으로 섭외했다. 완성된 영상은 YWCA KOREA 유튜브 계정과 흥청망청 모금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흥청망청 프로젝트는 2024년에도 계속된다. 지역청년여성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이 후원자가 되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한국YWCA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 출생

| 대학·청년YWCA

대한민국 출생율이 0.7명이라는 기록적인 발표가 나왔다. 계속해서 대두됐던 저출생 문제지만 이런 기록적인 숫자를 본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 청년토크에서는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줄 당사자인 여성청년들을 모아봤다.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다?

S,29세 : 요즘 초저출생이라는 이야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K,25세 : 저출생을 넘어서 초저출생이라니. 심각하긴 하다. 그치만 그렇다고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책임감은 안 들어.

L,30세 : 나는 올해 결혼을 해. 전에는 결혼하면 '무조건 출산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막상 결혼을 하게 되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게 되더라. 출산은 애국심에 의존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야. 지금 당장의 내 문제야.

S,29세 : 한국에서 애 낳으면 바보라고도 하잖아. 솔직히 나는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키우면서 전혀 행복해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

K,25세 : 부모님보다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겠어. 부모세대가 열심히 일해서 올려놓은 부동산 값, 경제수준에 맞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

L,30세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으니깐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는 거지.

S,29세 :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만 생각해 봐도 그래. 부모님이 바쁘면 집사님이 우리 봐주고, 교회에서 다같이 놀았잖아.

K,25세 : 요즘은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깐 누구에게 맡기기도 눈치 보이고, 오로지 가족들이 다 케어를 해야 하니 더 안 낳는 것 같아.

우리가 계산적인걸까?

S,29세 :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걸 알아. 합리적이고, 계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K,25세 : 아이를 낳는 가치와 일을 하는 가치를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돼. 나도 부모님이 열심히 번 돈과 사랑으로 이렇게 커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출산으로 인해 무용지물 되는 게 너무 아까워.

L,30세 : 사회는 '아이'를 원하지만 여성들은 '엄마'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 이제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봐주는 시대도 끝나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지금부터 나는 손주들 안 봐준다고 말하셔.

S,29세 : 경력단절이 될까봐도 무섭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나 둘 중 하나가 계속 케어를 하게 될 상황이 생길까봐 두려워.

L,30세 : 주변에서 아이를 갖고 눈치보고 힘들어하는 직장 동료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

K,25세 : 내 친구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취업하거나 이직할 때 결혼을 했다고 하면 절대 안뽑아준대. 결혼했다는거 숨기고 이직하는 친구도 있었어. 아이를 안낳을거라고 하지만 회사는 그걸 믿지 않거든.

S,29세 : 솔직히 어릴때부터 봐온게 엄마가 독박육아하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시집살이 당하는 거잖아. 그게 내 미래같아서 더 낳기 싫어진 것 같기도 해.

K,25세 : 금쪽이 예능을 봐도 낳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 예측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커.

S,29세 :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아이가 주는 사랑과 행복감

이 너무 크다고, 힘든 것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은 모르면 괜찮다고 생각해.

가난과 불행의 대물림

K,25세 : 이제 어른들의 충고는 전혀 도움되지 않아. 그때는 모두가 어려웠고, 모두가 가난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S,29세 : 우리의 부모님들이 신혼을 시작했을 때는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게 전혀 흠이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신혼을 시작하면 미쳤다고 수군거리잖아.

L,30세 : 출산기피세대라고 하잖아. 맞는 말인 것 같아.

K,25세 : 불행이 대물림될까봐 무서워. 코로나도, 환경오염도 모두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이야.

S,29세 : 나는 지구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안 낳고 싶어.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5억이라고 하잖아. 지금 75억이니깐 줄어드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

결혼과 출산은 '은'

S,29세 :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대한민국은 망했다니, 소멸한다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짜증나.

K,25세 : 결혼 평균연령이 너무 높아지니깐 아이를 낳기 더 어려워. 출생률이 낮은건 난임, 불임, 유산이 너무 많다는 것도 포함돼.

L,30세 : 맞아. 은근히 내 주변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이 많아. 유산을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와중에도 충분히게 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번 더 못해서 아예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S,29세 : 현재는 출산하고 나서 주는 돈이 다지. 임신과 출산 과정을 도와주는 제도나 회사 복지가 너무 없어.

L,30세 : 직장이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데 막상 현실은 여전히 눈치보고, 뒷날나오고 똑같아.

K,25세 :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이제 운이 좋다고 하는 것 같아.

S,29세 :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육아를 함께할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게 너무 슬프다.

K,25세 : 안 낳겠는 사람들 붙잡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라 낳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게 부러워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것 같아.

L,30세 : 그래, 나라가 일단 보여주자! 깨작깨작 지원하는 거 말고 과격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

어떤 법안이 나오면 아이를 낳을래?

L,30세 : 어떤 나라에서 아기를 많이 낳을까?

S,29세 : 여성에 대한 복지가 좋을수록 출생률이 높대.

K,25세 : 우선 경제적 안정이지. 육아휴직급여 150%를 주고, 베이비시터 제도를 나라에서 지원해줘야 돼.

L,30세 : 나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언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데 나는 늙고 있잖아. 냉동난자, 냉동정자 보관비용도 지원해주면 좋겠어.

S,29세 : 좋다. 나이가 더 들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생겼는데 아이를 못 가지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

K,25세 : 아파트 한 채는 줘야지. LH 공공주택 말고, 메이저 브랜드의 아파트 정도는 주자.

L,30세 : 육아할 동안은 재택근무를 하게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K,25세 :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걱정도 있어.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경제생활을 못할 수도 있잖아. 제도적으로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으면 낳을지도 모르겠어.

S,29세 : 이렇게 말하면 뭐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5-60대 남성인데. 그러니깐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L,30세 : 앞으로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저출생세대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

K,25세 : 맞아. 노동력, 노인들을 케어할 연금부족 같은 문제로 자꾸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로봇, AI 기술이 높아졌잖아. 굳이 아이가 없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해. 🇵🇵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것

| 송태근

삼일교회 담임목사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환상(vision), 꿈이 나옵니다. 환상(vision)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1절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중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매우 혹독한 순간과 환난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곳이 바울에게 더 특별한 이유는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루스드라로부터 이고니온의 거리는 20km나 될 정도로 넓은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에게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칭찬과 좋은 평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칭찬받는 디모데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칭찬 받는 디모데조차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9고린도전서 9:20)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수가 날마다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의도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바울의 목회와 복음 전도 사역이 너무나 잘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사역이 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통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형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보낼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음으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는 하나님의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에 잘 되어 보이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도대로 잘 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더듬이를 가지고 잘 살펴야 됩니다.



바울의 사역도 자신의 의도한대로 너무나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역이 잘 진행되니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이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이 잘 되어간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밀고 갑니다. 결국 오래가지 않아 본격적인 꿈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두 번씩 연거푸 등장하여 바울의 사역을 막습니다. 성령님은 이 일에 확정적 계획을 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항상 두 번이라는 숫자는 증거의 수요, 증인의 수입입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에 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갈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디어 유명한 마케도냐 환상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강대상 뒤쪽에 큰 문구가 걸려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서울을, 내일은 세계를”라는 플랜카드 밑에 성구를 사도행전 16장 9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케도


냐의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에서 환상의 영어가 vision이기에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 마지막 날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비전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비전, 환상은 성령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바울에게 주신 비상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상한 방법은 곧 그때가 위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꿈을 내려놓을 때 이루어진다

성령님은 이미 바울의 일행에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사인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중 언어가 가능한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셨지만 바울의 발걸음은 유대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일상과 상식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자, 하나님께서 한 밤중에 마케도냐 환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이십니다.

바울은 드디어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정이라는 말의 뜻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 당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은 인정하고 드로아를 떠나 네압볼리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그 여정이 2일 걸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뱃길은 2일만에 절대 갈수 없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길은 5일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차할 정도로 바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꿈의 충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평생을 설득당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먹는 것의 힘 희망과 연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화 <나의 올드 오크>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연구위원

상처입은 두 공동체가 만나면

자신이 살아온 오랜 터전에서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단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참혹한 전쟁으로 아예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석탄 산업 붕괴로 폐광이 된 영국의 한 마을에 전쟁의 상실과 트라우마를 온몸으로 견딘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해 온다. 영화는 처음부터 이 비참한 처지에 놓인 두 공동체가 조마조마하게 마주하는 장면을 비추면서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두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을 것인가” 라고. 영화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나간다. 상처입고 절망한 두 공동체에게 희망이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떻게 무너진 삶에서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찾을 수 있는지.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탄광산업들이 폐업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무기력한 존재들로 전락하며 삶의 희망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된다. 영화의 배경이 된 영국 북동부의 이 마을도 사람들이 점차 떠나고 주택들은 투기꾼들에게 값싸게 팔려나가는 처지에 놓인다.

도무지 나아질 전망이라 조금도 없는 이 마을 주민 앞에 어느 날 한 무리의 시리아인 난민들이 버스에서 내린다. 하지만 고단한 삶에 지친 주민들에게 이들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다. 마을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이들을 경계하고 혐오를 드러내고, 급기야 낯선 땅에 도착한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려 하

던 시리아 여성 아라의 카메라를 부서뜨린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않는 마을의 한 아이를 도우려 했던 아라는 주체넘게 간섭하는 이방인으로 비난당하는 등 시리아 난민들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의 혐오와 경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쟁을 피해 온 상처투성이 시리아인들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마을에 겨우 남아있는 펍 ‘올드 오크’의 주인 티제이가 그 중 하나다.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버림받고 절망하여 자살하려던 그를 살려준 강아지 ‘마라’를 키우며 펍을 운영하는 그는 아라의 망가진 카메라를 수리해주고 친구와 함께 난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눈다.

“우리는 함께 먹을 때 단단해진다”

경계와 혐오 속에서도 두 공동체가 서로에게 연민의 순환을 포착하게 될 때 이들의 삶도 극적으로 달라진다. 티제이가 아라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시리아 난민 아라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서 밥을 굶고 혼자 방치된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마을 미용실에서 걱정을 나누는 여성들의 고단한 얼굴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러자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닫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 이윽고 티제이는 오랫동안 폐쇄되어 먼지 창고가 되어버린 ‘올드 오크’의 안쪽 홀을 열어 두 공동체의 만남의 장소로 삼기로 한다. 그곳에서 아라의 카메라에 담긴 서로의 정겨운 얼굴을 함께 감상하고 즐거움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밥을 먹기로 한다. 집안에 방치되어 밥도 제대로 못 챙겨먹던 아이들이 기뻐하며



테이블을 가득 채운다.

이전에 탄광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마시고 먹고 토론하던 곳,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을 때 단단해진다”며 용기와 신념을 함께 나누던 올드 오크의 그 홀이 오랜만에 활기로 넘친다.

하지만 그 따뜻하고 가슴 벅찬 순간들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시리아 난민들을 못마땅해하던 티제이의 친구 몇몇이 수도배관을 의도적으로 고장나게 하여 부활했던 올드 오크의 홀은 다시 폐허가 된다. “좋은 건 오래 못 간다”며 아이들은 체념하고, 펍의 주인 티제이는 친구들이 한 짓에 배신감을 느끼며 말한다. “삶이 힘들 때 우린 희생양을 찾아. 절대 위는 안 보고 아래만 보면서 우리보다 약자를 비난해. 언제나 그들을 탓해. 약자의 얼굴에 낙인을 찍는 게 더 쉬우니까.”

희망을 만드는 우정과 연대의 밥상


도무지 희망이라곤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절망하

고 힘든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 겨우 위로를 찾으려는 모습들은 낯설지 않다. 서로의 비참함 속에서 연민을 느끼다가도 자신의 삶마저 위태롭게 될까봐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상황들은 우리는 도처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연민과 연대는 위태롭고 위협받기 쉽다. 그렇다면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

이 질문에 영화를 만든 켄 로치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희망은 다른 게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연대가 됩니다.”

힘을 뺏기고 무력했던 그들은 이전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던 기억을 환기하여 극적으로 새로운 연대의 힘과 삶의 희망을 만들어나간다. 시리아 난민 아라 아버지의 죽음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애도하고, ‘용기, 저항, 연대’라는 글자가 새겨진 시리아 난민들이 짠 양탄자 걸개를 들고 두 공동체가 마침내 함께 행진한다.

양극화된 빈부격차,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지구생태계 파괴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소비자본주의 위력 앞에서 절망과 무기력을 느끼다가 보게 된 이 영화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감동의 눈물을 밀어올린다. 그리고 곧 명징한 깨달음을 가져다준다. 이 위태로운 세상에서도 사람은 왜 끊임 없이 희망을 갖고 삶을 이어가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과 함께 마시고 떡을 나누셨는지, 왜 동아시아에서 유토피아를 지칭하는 ‘대동(大同) 세상’의 뜻이 커다란 텐트 밑에 모여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새삼 윌리엄 브레이크의 시가 떠오른다. ‘새는 동지에, 거미는 거미줄에, 사람은 우정 안에.’

거장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의 올드 오크>는 희망을 만드는 일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며 생명의 밥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그 속에서 서로의 인간다움과 사랑을 발견하고 마침내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라는 걸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4 YWCA 신년예배



2024년 YWCA 신년예배가 1월 10일(수) 오전 11시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예배는 2024년 한국YWCA가 청년성을 회복하고, 청년들과 공감하며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에서 청년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고 있는 송태근(삼일교회) 목사가 사도행전 16장 6~10절 말씀을 통해 '비전인가 순종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연합회 청년활동가들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50쪽)

2024년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



2024년 2월 22일(목) 오전 11시 새문안교회에서 2024년 (사)한국YWCA연합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전국 50개 회원YWCA 대표를 비롯해 연합회 직무상 대표 등 160여 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올해 정기 총회에서는 ▲공천위원·법인이사 선출 ▲광명YWCA 탈퇴 ▲2024-2025년 한국YWCA 운동 및 운영 정책 채택 ▲2024년 (사)한국YWCA연합회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사)한국YWCA연합회 회장단으로 조은영 회장, 김은경 제1부회장, 이은영 제2부회장, 서다미 청년부회장이 선출됐다. (자세한 내용은 6쪽)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기도회

한국YWCA는 12월 19일(화)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에큐메니컬 기관들이 주최한 '전쟁반대 한반도평화를 위한 집중기도회'에 함께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2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전쟁반대 긴급기도주간'을 정하고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문을 공유한 바 있다.



이 날 예배에서는 분쟁과 전쟁의 상황 속에서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의지와 실천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선포됐다.

회원YWCA 재구조화 백서 제작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회원YWCA 재구조화(사단법인 전환) 과정을 기록한 백서가 「회원YWCA 재구조화 종합결과보고서」와 「회원YWCA 재구조화 교육결과보고서」로 제작됐다. 종합결과보고서는 본문 260쪽, 별첨자료 4,236쪽으로 구성됐다. 회원YWCA의 재구조화 정책 의결 및 실행의 전 과정과 회원YWCA별 상담 및 지원 사항, 재구조화 과정에서 경험한 제도적 문제와 대응 과정의 기록이 두 보고서에 담겼다. 교육결과보고서는 본문 108쪽, 별첨자료 7,566쪽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95회, 277시간, 1,635명의 YWCA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원YWCA 재구조화 지원교육의 결과보고서 및 평가, 향후 필요 교육 제안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YWCA 온라인 아카데미 'YWCA 이해' 개편



YWCA 온라인 아카데미의 'YWCA 이해' 강좌가 3월부터 전면 개편된 내용으로 공개된다. 'YWCA 이해'는 연합회 및 회원YWCA 이사, 실무활동가들이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할 과목으로 YWCA 목적과 정체성(이숙진 이화여대 교수), 탈핵생명운동(1)(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소 공동대표), 탈핵생명운동(2)(유에스더 연합회 활동가), 성평등운동(김은경 연합회 성평등위원장), 평화·통일운동(최수산나 연합회 국장),

YWCA 지역운동(박동순 연합회 국장) 강의로 구성돼 있다. 한편 YWCA 온라인 아카데미는 YWCA 목적과 가치, 운동·운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2020년 7월 홈페이지를 개설해 교육을 진행해왔다. YWCA 온라인 아카데미(www.ywca-edu.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2024 YWCA 법인임원 필수교육(온라인) 운영 시작



'2024 YWCA 법인임원 필수교육'이 1월 2일(화)부터 YWCA 온라인 아카데미를 통해 운영된다. 'YWCA 법인임원 필수교육'은 연합회 및 사단법인 회원YWCA 이사와 본부 실무활동가들의 법인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교육으로, 시민사회(시민사회 변화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희숙 (재)동천 변호사), 거버넌스(비영리 거버넌스와 YWCA 이사의 역할, 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세무-회계(1)(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김소영 연합회 재무국장-회계사), 세무-회계(2)(공익법인 회계처리 기준과 재무제표 작성하기, 김소영 연합회 재무국장-회계사), 인사-노무(비영리 인사노무 기본이해, 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강좌로 구성돼 있다. 6월 30일(일)까지 YWCA 온라인 아카데미(www.ywca-edu.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2023 흥청망청 최종보고회



1월 13일(토)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2023 흥청망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연합회는 최종보고회에서 후원자와 수혜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프로젝트 결과를 공유하고 연속 후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참석자들이 두 팀의 활동보고와 완성된 프로젝트 결과물을 함께 관람했고, 2부에서는 케이터링을 나누며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흥청망청 자체 스토리와 과정, 각 팀별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아카이빙 영상은 YWCA

KOREA 유튜브 계정(youtube.com/@YWCAKOREA1922)과 흥청망청 모금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46쪽)

2024 Y-틴 전국협의회



2024 Y-틴 전국협의회가 1월 16(화)-17(수)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총 15개 회원YWCA 대표 청소년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협의회에 참여한 Y-틴들은 2023년 각 지역 활동을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발표하고 '기BTI(기후+MBTI 합성어)'를 다시 체험하며 이를 보완·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 설문에서 제시한 '기후와 환경' 주제에 맞춰 학습지 풀이 활동을 가졌고,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전국협의회 결과 2024 Y-틴 중점운동은 '기후위기와 생태계'로 정해졌으며, 슬로건은 '녹색 생각, 지구를 지키는 힘!'으로 결정됐다. 2024년을 맞아 Y-틴 중앙임원회 구성원도 새롭게 선출됐다. 이은우 대전YWCA 회원이 중앙임원회 회장직을 맡게 됐다. 강경화 대구YWCA 회원은 총무로 선출됐다. 서부·동부·중부지역의 회장단 또한 당일 진행된 지역협의회를 통해 정해졌다. 북부지역 회장단은 추후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36쪽)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월 19일(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18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등

은 국민의 힘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각 계대표가 참석해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구정혜 연합회 사무총장 또한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연합회와 산하 41개 지역 YWCA가 특별법 즉각 공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 660개 단체가 연명했다.

한일 YWCA 청년 대화모임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하여



1월 19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한·일 YWCA 청년 대화모임 :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하여’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화모임은 2023년 7월 진행된 한일 YWCA협의회 회의의 후속 작업으로 한국과 일본의 YWCA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전·부산·전주·청주YWCA 활동가를 포함한 한국 참가자 12명과 일본 참가자 12명 등 총 24명의 한·일 YWCA 청년들이 대화모임에 참가했다. 대화모임은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위험성 인식 여부,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관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 등 참가자들이 작성한 사전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2시간여 동안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이 알게 된 각국의 상황에 놀라움과 공감을 표현했다. 양국의 청년들은 대화모임을 마무리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의 활동을 응원하기로 약속했다.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



1월 20일(토) 연합회 A스페이스에서 대학·청년YWCA 회원

과 담당 실무활동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학·청년 YWCA 전국협의회 총회가 열렸다. 전국협의회는 여는 예배와 아이스브레이킹, 특강,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특강에는 연합회 실무활동가가 활동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으로 꾸러졌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2023년 대학·청년Y 활동보고와 청년운동팀 활동보고, 임원선출, 청년법인이사, 청년공천위원 추천, 2024년도 운동주제 채택 등이 이뤄졌다. 논의 결과 2024년 운동주제로 ‘YWCA 기후정의 아카데미’가 채택됐다. (자세한 내용은 38쪽)

2023 키다리학교 활동나눔



키다리학교 활동나눔이 2월 3일(토) 연합회에서 대전, 목포, 부산, 순천, 안산, 창원, 청주 7개 회원YWCA의 키다리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2023년 키다리학교의 활동 주제는 기후, 환경, 인권, 진로였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키다리청소년들은 각 지역에서 진행한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와 실천이라는 키다리학교 중요 가치에 따라 활동나눔 또한 키다리청소년들의 주도로 진행됐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여는 기도는 대전YWCA에서 맡았으며, 레크레이션은 창원과 청주YWCA에서 담당했다. 2023년 ‘활동나눔’ 시간 진행은 청주YWCA에서 맡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키다리청소년들은 각 지역에서 벌인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안산YWCA가 진행한 소감나눔 시간에서 키다리학교의 2023년 성장을 돌아보고, 2024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23년 활동을 스스로 칭찬해 보는 ‘우리 키다리 칭찬하기(상장만들기)’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행사 사회는 부산YWCA에서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40쪽)

제21차 한·일YWCA 청년협의회

2024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가 2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2박 3일간 연합회에서 진행됐다. 이번협의회에서 한일 YWCA 청년들은 여성·평화·안보(WPS)를 주제로 비평화, 불평등의 구조를 평화, 정의의 구조로 전환하는 평화구축(peacebuild-



ing)의 과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WPS 관점을 배우고 실천방안을 함께 찾고자 했다. 한국YWCA 10명, 일본YWCA 9명, 양국 실무활동가 7명 등 총 26명이 협의회에 참가했다. 협의회 일정 동안 ‘WPS와 동아시아청년들’, ‘여성의 정치참여가 WPS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운동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과 함께 각 국가별 페미니즘 양상에 대한 국가보고, 한국과 일본YWCA 청년들의 활동보고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참여했다. 또한 액션플랜 수립 시간을 통해 함께 연대할 활동을 모색했다. (자세한 내용은 32쪽)

일본YWCA 청년 활동가들, 제1635차 수요시위 참여



연합회는 2월 14일(수) 오후 12시~1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163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주관했다. 이번 수요시위에는 제21차 한·일YWCA청년협의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YWCA 청년 활동가들도 함께했다. 일본YWCA 청년 활동가들은 연대발언과 특별 합창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할 것임을 결의했다. 한국YWCA 청소년 회원인 Y-틴도 이번 집회에 함께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수요시위를 통해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 ▲책임자 처벌 ▲역사교과서에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24 YWCA 신입회장교육

2024 YWCA 신입회장교육이 2월 21일(수)부터 22일(목)까지 연



합회 A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YWCA 신입회장교육은 YWCA 목적과 정체성, 운동과 운영정책, 회장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총 15명의 회원YWCA 신입회장(거제, 광양, 남양주, 남원, 대전, 마산, 서귀포, 순천, 양산, 여수, 울산, 제주, 천안, 하남Y)이 참석했다. ‘YWCA 목적과 사명’(장운재 이화여대 교수), ‘YWCA 회장의 역할과 사명’(원영희 연합회 회장), ‘재구조화 경과와 YWCA 운동·운영정책’(구정혜 연합회 상임이사), ‘비영리 거버넌스와 회장의 역할’(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강의와 회장 네트워킹과 나눔을 통해 회원YWCA 회장으로서 헌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42쪽)

제3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직전 회장이 제3회 이행자리더십어워즈 수상자로 선정됐다. 원 직전 회장은 1978년부터 YWCA 활동을 시작해 약 37년간 YWCA에서 위원, 이사, 회장, 세계YWCA 이사, 공천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한국YWCA연합회 회장으로서 한국YWCA 100주년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한국YWCA 구조변화와 전국YWCA 법인화를 통해 기독교시민단체로서 공익운동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공헌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행자리더십어워즈는 한국YWCA 목적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행자 리더십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자세한 내용은 42쪽)

제1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워크숍

제1차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워크숍이 2월 16일(금) 오후 2시 온라인 줌(ZOOM)에서 열렸다. 33개 지역의 YWCA 탈핵기후 활동가들 총 50여 명이 모여 올해 한국YWCA의 운동방향을 공유하고, 강의와 사례공유를 통해 배움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첫 순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 YWCA와 연대하는 에너지정의행동의 이현석 정책위원의 강의로 시작했다. '2024 총선흐름과 탈핵기후 운동이슈'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는 국내외적 탈핵기후 흐름을 살펴보고,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다뤄졌다. 이어진 회원YWCA 사례공유 시간에는 수원YWCA의 변남순 팀장과 고양YWCA의 남궁혜경 국장이 사례 발표를 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게 탈핵기후 운동을 전개하는 방법과 실무활동가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켜온 경험들을 공유했다. 올해 탈핵기후생명 실무활동가 워크숍은 매달 짝



수달에 온라인 줌(ZOOM)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슈에 맞는 강의와 국내외적 운동흐름, 회원YWCA의 탈핵기후생명운동 사례 등이 워크숍을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북한어린이돕기 모금(농협 301-0161-5540-11)

(2023.12.1~2024.2.15)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승아 강현종 고세영 객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근혜 김기동 김대식 김명희 김병호 김소영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나차더르즈돌람수렌 남희숙 문미란 문병식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성민 박영순 박용욱 박은실 박지영 박진화 배유미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송인호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양영심 엄세현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민정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현진 이해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장세영 장진희 정경란 정동신 정지유 조성에 조승환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최수산나 최지영 하은경 하지원 한영수 홍기자	1,305,000
단체	청주YWCA 목포YWCA 천안YWCA	2,494,760
합계		3,799,760

YWCA 흥청망청 모금(농협 301-1922-0000-31)

(2023.12.20~2024.02.15)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고마음 구정혜 김민화 김미경 김미애 김민주 김승아 김은경 나연정 박동순 박윤애 박희정 서해원 송기영 안수진 임순옥 윤수정 이예림 이은혜 이주영 이한빛 이해련 이해정 임원선 임진영 정서연 조은영 조은지 최선화 최수산나 홍수진	2,635,750
단체		
합계		2,635,750

팔레스타인 올리브 트리 캠페인 모금(농협 301-0226-0851-01)

(2023.12.20~2024.2.15)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강나영 강수현 강영은 강이슬 강현희 강형선 강혜원 고미연 고미희 고은영 고정희 고혜정 구정혜 김가인 김경은 김나리 김대영 김미정 김민지 김선미 김선주 김수연 김순영 김순희 김승진 김애자 김윤희 김은경 김재연 김정숙 김정은 김지숙 김진경 김혜경 김혜순 김호정 김희정 류인숙 문재희 박수미 박윤애 박지호 박혜정 배경렬 배태철 서해원 손선미 송지연 신승경 신유인 안선영 양금선 양문희 양정윤 오현주 유래연 이미영 이예린 이유나 이주영 이지은 이한빛 임성숙 임순옥 임진영 장수빈 정윤희 정현주 조범산 진애령 차경애 차민호 최수산나 한진희 현나희 현영실 홍승아 홍윤희	1,140,000
단체	(사)동해YWCA (사)목포YWCA (사)순천YWCA 반포침례교회 안산돌봄과살림(주) (사)제천YWCA직원상조회 2023YWCA성탄예배헌금	3,999,200
합계		5,139,200

경인·강원권역

(사)강릉YWCA

최경선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 수상



12월 19일(화) 강원도청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주관 활동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활동보고회에서 (사)강릉YWCA 백용애 단원이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유해환경감시활동에 공을 인정받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상을 받았다.

강릉YWCA는 199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50명의 구성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꿈꾸는 청소년 프로젝트 '애들이 아침먹자!'를 부활시켜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애들이 아침먹자!'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 알리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떡을 청소년들에게 나눠주며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사)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YWCA성탄축하 회원한마당잔치 개최



(사)동해YWCA는 12월 14일(목) 오후 4시 동해YWCA 회관에서 성탄축하 회원한마당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 영광 오늘 다투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3)' 성탄메시지를 회원들과 나누고자 했다.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은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별 장기자랑을 통해 숨겨놓은 끼와 매력을 발산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시간을 보냈다.

(사)서울YWCA

성지희 부장

'허라이즌(HERizon)' 오프닝 세레머니



(사)서울YWCA는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하는 차세대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허라이즌' (HERizon: Empower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오프닝 세레머니를 1월 19일(금) 주한미국대사관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제주·부산·평택·광주·강릉 지역에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선발된 총 36명의 여성(만 25-35세)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송진순 교수(이화여대 외래)의 주제 강연 '다양성과 포용성의 리더십'을 듣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5월까지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가고 서로를 격려했다.

(사)원주YWCA

최은미 간사

원주YWCA어린이합창단, 2024년 원주시 신년인사회 공연



원주YWCA어린이합창단이 1월 3일(수) 오전 11시 원주시 인터볼로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4년 원주시 상공회 신년행사에 초대됐다. 이날 행사에서 합창단은 첫 식전 공연을 하고 본식에서 애국가를 선창했다. 원주YWCA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가 2024년 원주시 청룡의 해의 문을 열었다. 합창단원들에게도 이번 무대는 뜻 깊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 합창단을 떠나야 하는 단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무대였기 때문이다. (사)원주YWCA와 합창단원, 단원의 학부모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서로의 2024년을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에는 김태영 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사)인천YWCA

서에스더 간사

인천시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

(사)인천YWCA는 12월 28일(목) 인천YWCA 강당에서 인천시 관계자와 시민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인천YWCA는 2023년 진행한 나



눔장터에서 인천 시민들로부터 기부받은 600여만 원을 관내 이웃에게 후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춘천YWCA 이지연 간사
(사)춘천YWCA 성탄예배 및 워크숍



(사)춘천YWCA는 12월 21일(목) 오후 6시 스카이웨딩홀에서 성탄예배 및 전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춘천YWCA 각 기관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다. 이사 9명과 본부 직원을 포함해 부속시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춘천YWCA어린이집 전 직원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탄예배와 2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성탄예배에서는 강원경(춘천YWCA 어린이집) 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안경이(레브엘교회) 목사가 '천국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춘천YWCA 회원인 이예진 성악가가 특송 '오 거룩한 밤과 연'을 선사해 참석자들은 성탄의 기쁨을 배로 느낄 수 있었다. 2부 워크숍에서는 이병옥(춘천YWCA) 회장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앞으로를 향한 다짐을 전했다.

경기권역

(사)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2024년 신년성찬감사예배 '우리 함께 생명의 빵을 먹자'
(사)고양YWCA는 1월 2일(화) 이사, 활동가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성찬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에서 김나경 목사(여성영성연구소 The풀 대표)가 '우리 함께 생명의 빵을 먹자'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나경 목사는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임을 이야기하며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연



결되는지 설명했다. 고양YWCA는 김나경 목사가 집행한 성찬예배에 참여하며 예수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리라 다짐했다.

(사)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구직회원 자조모임 '백합회', 송년 음악회 관람



(사)남양주YWCA는 12월 9일 구직회원 자조모임인 '백합회' 회원들과 함께 다산아트홀에서 '파리나무집자가소년합창단' 공연을 관람했다. 백합회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업무에 대한 피로를 날리고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다. 공연 관람 후 식사자리를 마련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부천YWCA 임행심 사무총장

(사)부천YWCA 원미노인참여나눔터 체력측정의 날



1월 4일 새해 첫 목요일, 원미노인참여나눔터 여성노인들의 체력 측정이 있었다. 만 70세 이상 여성노인 자조모임인 원미노인참여

나눔터는 2023년부터 매주 목요일 여성노인들의 만성통증 완화를 위한 운동치료를 진행해왔다. 여성노인들이 앓고 있던 통증 완화, 여성노인들의 근력 향상 여부 등 총 4개 종목에서 체력 측정이 이루어졌다. 체력 측정 결과 상체근력, 하체근력, 상체유연성, 하체유연성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모두 표본 집단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과를 받아 본 참가자들도 놀랍고 즐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사)부천YWCA는 2024년도에도 여성노인들의 근력강화와 근육이완을 위한 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체계화 할 예정이다.

(사)성남YWCA 이현주 간사

(사)성남YWCA '회원의 날' 맞아 영화상영



(사)성남YWCA는 12월 12일 '회원의 날'을 맞아 영화관을 대여해 영화 상영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회원의 날에는 회원뿐 아니라 회원 가족과 지인도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3일의 휴가' 관람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행사에 시스템 베이스가 축하 화환을 보냈고, 뷰티플 스마일은 성남YWCA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증정한 화장품을 후원했다.

(사)수원YWCA 정혜진 책임간사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우리동네 와플학당', 겨울 돌봄교실 운영



(사)수원YWCA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우리동네 와플학당'에서 겨울 돌봄교실을 열었다. 이번 겨울 돌봄교실은 1월 8일(화)~2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겨울 돌봄교실에는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이 소질과 재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기존에 진행하던 영어와 경제, 비전교육에 더해 역사와 키즈 위빙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다. 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 좋다. 이번 돌봄교실에 참여한 아이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하는 역사 수업에 흥미를 보였다. 양말목과 매듭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공예수업에서도 각각의 개성과 창의력을 뽐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했다.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마을과 연계한 안전한 돌봄망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젠더렌즈'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사)안산YWCA는 12월 13일(수) 안산YWCA 강당에서 4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평등 환경조성을 위한 시민모니터링 보고회'를 진행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역 및 지자체에서 공공정책을 알리는데 활용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측면은 없는지 시민들과 성평등한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성평등 환경 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안 제시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성평등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안산YWCA는 결과보고회를 통해 지역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여 안산지역 내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 방민영 간사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작을 여는 신년 시무예배
(사)안양과천군포의왕YWCA는 1월 2일(화) 오전11시 안양YWCA 회관에서 3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모인 가운데 신년 시무예배를 진행했다. 갑진년 새해를 맞으며 안양과천군포의왕YWCA가 안양 지역은 물론 과천, 군포, 의왕 지역까지 안양YWCA의 운동을 알리고 확산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



다. 이를 위해 의왕지역 목사를 초빙해 설교 말씀을 들었다. 시무 예배는 박혜숙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한미정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대표 기도를 맡았고, 박건 (의왕 예전교회) 목사가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예배 말미에는 성경 구절이 적힌 신년 카드 뽑기를 진행해 각자 뽑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다.

(사)의정부YWCA

황은실 간사

(사)의정부YWCA 성탄예배



(사)의정부YWCA는 12월 21일 오전 11시 의정부YWCA 대교육장에서 이사, 위원, 회원,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성탄예배를 진행했다. 성탄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2024년에도 의정부YWCA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리였다. 이번 성탄예배는 신선화 회장의 초 밝힘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 성경 구절 카드 뽑기, 활동가들의 핸드벨 연주와 축하특송 등으로 채워졌다.

(사)파주YWCA

김래정 팀장

전인적 성장 도모하는 돌봄 프로그램 '우리 함께, 더 높이!'
(사)파주YWCA는 지난 10월 16일(월)부터 12월 29일(금)까지 주마음교회 교육관에서 초등학교 15명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 '우리 함께, 더 높이!'를 운영했다. 돌봄프로그램 '우리 함께, 더 높이!'는 방과후 돌봄교실로,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의 '지역협력 거점형 돌봄 프로그램'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파주YWCA는 본 돌봄교실을 통해 기존 학교돌봄교육을 보완·차별



화한 교육을 지역 아동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체험교육 위주로 꾸려졌다. 창의미술, 독서논술, 음악(핸드벨, 노래), 환경교육(재활용, 새활용), 창의종이접기, 놀이체육(전래놀이), 토털공예, 인문학, 금융경제('착한 기업가' 체험), 감성스피치, 요리, 창의 레고, 음악(스틸링 드럼, 노래, 핸드니팅, 영어뮤지컬 수업 등)이 제공됐다. 또한 교육 참여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에 참여하도록 통학버스 서비스도 운영했다.

(사)하남YWCA

김상미 팀장

성탄예배 및 환경나눔파티



(사)하남YWCA는 12월 21(목) 하남YWCA 회의실에서 성탄예배와 환경나눔파티를 개최했다. 성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탄소 줄이기 또한 실천하고자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사 및 실무활동가 등이 함께했다. 성탄예배는 배운례 하남YWCA 회장의 말씀 선포로 시작됐다. 예배 이후 진행된 환경나눔파티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각자 잘 쓰지 않는 물건 등을 가져와서 나눔을 진행했다.

충청권역

(사)논산YWCA

조은숙 팀장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지구를 살리는 옷장' 교육 진행

(사)논산YWCA는 12월 22일(금) 논산 관내 논산중학교와 썬밸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물품을 만드는 '지구를 살리는 옷장' 교육을 진행했다. 논산YWCA는 2023년 1년간 두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키는 기후위기(청지기)' 환경동아리를 운영해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패스트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에 대해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올바른 소비생활과 실천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 수업과 체험 수업으로 꾸려졌다. 체험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먼 티셔츠를 업사이클링 해 장바구니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의류 및 사고세탁물심의 정보전시회 개최



(사)대전YWCA는 12월 26일(화)-28일(목) 대전YWCA 1층에서 의류 및 사고세탁물심의 정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세탁물 관련 소비자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세탁물심의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고세탁물심의는 세탁 관련 전문위원들이 시험검사와 상황 판단을 통해 세탁물 관련 분쟁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 제도이다. 대전YWCA는 매해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시민들이 세탁물심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 전시회를 준비했다. 전시회에는 2023년 1년간 발생한 사고세탁물심의 사례가 사진 패널로 제작돼 배치됐다. 의류 수명 등의 기초적인 의류 정보도 제공됐다. 세탁물심의를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사)세종YWCA

장은정 부장

'별보는 밤' 소등 캠페인 진행

(사)세종YWCA는 12월 25일(화) 저녁 9시부터 10분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보는 밤' 소등 캠페인을 진행했다. '별보는 밤' 캠페인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후 9시부터 10분간 소등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각 지역의 정부 지자체 청사와 각 지역의 명소, 아파트 등에서 10분간 동시 소등을 할 경우 약 52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세종YWCA는 소등 캠페인이 진행되는 10분의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함께 지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했다.

(사)제천YWCA

김미경 팀장

실버인지놀이 강좌 진행



(사)제천YWCA 부설 지구별도서관은 1월 10일(수)부터 1월 31일(수)까지 4회에 걸쳐 노인 돌봄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실버인지놀이' 강좌를 진행했다. 실버인지놀이 강좌는 오감각 자극 놀이를 통해 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들은 신체와 뇌 활동을 촉진하는 인지 놀이, 신체활동을 배워보는 것들로 구성됐다. 또한 돌봄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손을 이용한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음악을 이용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걷기를 통한 인지자극 프로그램, 통합프로그램 활용하기 등이 마련됐다.

(사)천안YWCA

곽효정 팀장

(사)천안YWCA, 회장 이·취임식 진행

(사)천안YWCA는 1월 26일(금) 천안YWCA 회관에서 임직원 및 가족,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13대 회장 이·취임



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 제12대 한정순 회장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면서 제13대 이해경 회장이 취임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한정순 이임 회장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며 한정순 회장의 노고에 격려를 보냈다. 아울러 신임 이해경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해경 회장은 선서를 통해 천안YWCA 발전과 천안YWCA와 지역사회의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경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YWCA 창립정신을 잃지 않고 늘 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회원들의 소리를 겸손히 듣고, 지역사회에 YWCA 운동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해경 신임회장은 2005년부터 이사로 재임하였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회장을 역임했다.

(사)청주YWCA 박은지 간사

(사)청주YWCA, 후원의 날 개최



(사)청주YWCA는 12월 5일(화) 블루체어라운지에서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후원의 날 행사는 회원, 후원자,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가 일으킨 바람, 우리가 일으킬 바람’이라는 주제로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행사는 운성자 회장의 인사말과 이해경 사무총장의 청주YWCA 역사, 중점운동 특강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후원 기업 4곳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됐다. 행사 이후에 마련된 만찬에서는 이사·실무자합창단의 특송과 어쿠스틱 앙상블 ‘제이’의 공연이 이어졌다.

(사)충주YWCA 김성화 간사

지역생산물 SNS홍보사업 성과보고회



(사)충주YWCA는 12월 8일(금) 충주시 지현 문화플랫폼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지역생산물 애용 충북사랑 SNS 홍보사업’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지역생산물 애용 충북사랑 SNS 홍보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단체에서 교육한 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용하고 개인 SNS에 홍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운영됐으며,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충북지회,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교육중앙회충북도지부도 함께했다. (사)충주YWCA는 2년째 본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각 단체의 모니터링단이 제품을 홍보한 결과를 확인하고, 모니터링단 시상식도 진행됐다. 모니터링단은 2023년 동안 총 48개 기업 제품을 홍보했다. 충주YWCA 모니터링단은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다수 수상하는 등 활동을 인정 받았다. 한편, 성과보고회에서는 모니터링단이 홍보한 생필품 등이 배치됐는데, 해당 제품은 행사 이후 지역 복지기관(충주여자중장기센터, 해피하우스다솜)에 후원됐다.

경상권역

(사)거제YWCA 정의인 간사

2023년 작은다문화학교 종강식



(사)거제YWCA 부속 거제시가족센터는 12월 7일(목) 거제시가정 행복지원센터에서 2023년 작은다문화학교 종강식을 개최했다. 작은다문화학교에서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직업체험 등을 10개월간 운영했다.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총 246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종강식에는 수강생 표창과 한국어 교육 수기 공모전 시상 등도 이뤄졌다. 한국어 교육을 성실히 공부한 수강생 18명과 해당 공모전에 뽑힌 6명에게도 상이 수여됐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한 수강생은 “함께 모여 공부하니 말도 빨리 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사)김해YWCA 배정숙 국장

홀로어르신들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진행



(사)김해YWCA는 2023년에도 ‘홀로어르신들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홀로어르신들 따뜻한 겨울나기 프로젝트는 독거노인에게 겨울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YWCA는 ‘일일 브런치’ 행사 수익금과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농협은행 김해지부에서 후원 받은 것들을 합해 독거노인들에게 패딩 조끼와 내의를 약 300벌 전달했다. 또한 일일 브런치 행사 수익금 중 일부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쓰였다.

(사)대구YWCA 박선혜 간사

(사)대구YWCA,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공유회' 성료

12월 21일(목) 대구북합스포르타운 시민체육관에서 ‘2023년 우리마을 교육나눔 성과공유회: 우리가 있다, 마을을 잇다’가 개최됐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75개 마을에서 온 추진위원과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에서 시행한 주민주도형 청소년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배움터로 삼아 다양한 체험활동과 경험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이다.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631개의 다양한 유형의 마을활동, 나눔·봉사, 진로직업체험, 창의체험, 청소년주도활동을 경험했다. (사)대구YWCA는 해당 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사)마산YWCA 강현영 간사

(사)마산YWCA 송년의 밤



(사)마산YWCA는 12월 14일(목) 마산 부패과파크에서 ‘2023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2023년 한해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며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이사, 본부 및 부설기관 직원, 동아리 클럽 임원, 자원봉사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송년의 밤은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송년 감사예배가, 2부에서는 교제와 나눔이 진행됐다. 1부 예배 진행은 김명자 회장이 맡았으며, 박규원 열림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손봉준 지휘자(마산YWCA선교합창단)는 바이올린 연주로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했다. 2부 행사 사회는 이효진 이사가 맡았다. 행사 참석자들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사)부산YWCA 신정은 간사

(사)부산YWCA 회원성탄제

2023 (사)부산YWCA 회원성탄제가 12월 12일(화) 오후 2시 부산YWCA 일한실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된 우리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YWCA’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날 행사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성탄제는 기도와 찬양, 문춘근 리빙교회 목사의 설교로 채워졌다. 신입 회원 환영식과 가야금 축하공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다함께 촛불을 나누고 캐럴을 부르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사천YWCA 송주은 간사

(사)사천YWCA 직원 및 부설직원 워크숍



(사)사천YWCA는 1월 12일(금) 거창 이수미팜베리와 흔들다리에서 직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천YWCA 실무자들의 소속감 고취와 원활한 소통 분위기 조성 등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열렸다.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은 '유 퀴즈 YWCA' '그림으로 나의 매력 소개하기' '건강을 불러오는 유기농 식초 만들기'를 통해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양산YWCA 성정미 간사

(사)양산YWCA 신년하례회



(사)양산YWCA는 1월 10일(수) 양산YWCA에서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자원활동가들과 실무자들은 2024년에도 YWCA의 목적에 기반을 두어 생명공동체로 더욱 정진하는 양산YWCA를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신년예배와 2부 활동가 나눔 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 시간에는 박해숙 회장이 새해인사를 전했으며, 여명숙 이사가 신년 시 낭송을 선사했다.

(사)울산YWCA 권한별 팀장

2023 성탄예배 및 한사랑축제



(사)울산YWCA는 12월 14일(금) 오후 3시 울산YWCA 2층 강당에서 '2023 성탄예배 및 한사랑축제'를 열었다. 이사와 위원, 실무자들이 2023년을 돌아보고 마무리하며 화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모였다. 행사는 1부 성탄예배, 2부 한사랑축제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성탄예배에서는 지창완 이사가 예배 인도를 맡았고, 김상우 선생(여성회관)이 대표기도를 했다. 성매매피해상담소&씨밀레의 특송이 이어졌고, 이창준 목사(한빛교회)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2부 한사랑축제에서는 이광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의 사회로 웃음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회원·사업·문화위원회, 프로그램·청소년대학위원회가 함께 이해인 수녀의 '별이 되게 하소서'를 낭독하고 '천사들의 노래'를 찬양했다. 김덕순 회장은 성탄 인사를 전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주YWCA 윤인주 간사

공유옷장으로 함께 한 진주YWCA-YMCA 연합예배

(사)진주YWCA는 12월 7일(목) 오후 6시에 열린 2023 세계기도주간 YWCA-YMCA연합예배에서 '공유옷장'을 진행했다. 기후위기시대의 자원공유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행동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연합예배에 모인 진주YWCA와 YMCA 단체 이사와 임원, 실무활동가 25명은 '씨앗을 심고 꽃이 피기까지'라는 주제로 예배 드렸다. 이후 사용하지 않는 옷



가지, 물건들을 한데 모아 함께 나누고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유옷장에는 옷가지 50여 점과 운동기구, 건강보조제, 장난감 등의 생활용품 20여 점 등이 마련됐다. 행사 마무리 후 남은 물품은 자원순환활동기관(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사)진해YWCA 김방현 간사

(사)진해YWCA 어울림 합창단 정기연주회



(사)진해YWCA 어울림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12월 7일 오후 7시 제일진해교회 은혜홀에서 펼쳐졌다. 합창단은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지역민들에게 선보였다. 합창단 지휘는 정태석님이, 반주는 오순아님이 맡았다. 진해YWCA 우쿨렐레 팀과 살림청소년회복센터 청소년 기타 팀이 찬조 출연해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합창단원들은 이번 연주회가 불확실한 시대에 한줄기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사)창원YWCA 심진실 간사

제84차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금요캠페인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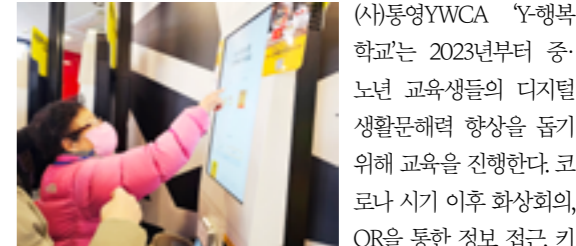
(사)창원YWCA는 1월 19일(금) 제84차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금요캠페인'을 주관했다. 창원YWCA 자원봉사자들과 실무활동가들은 창원시청과 창원시의회 일대 및 주변 상가 지역을 행진하며 시민·공무원·시의원들에게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오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반혜영 창원YWCA 사무총장은 캠페인



마무리 발언에서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금요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2022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

(사)통영YWCA 변은실 과장

Y-행복학교, 중·노년의 학습자들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진행



(사)통영YWCA 'Y-행복학교'는 2023년부터 중·노년 교육생들의 디지털 생활문해력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코로나 시기 이후 화상회의, QR을 통한 정보 접근, 키오스크 사용 등의 디지털 문화가 대중화됐기 때문이다. 중·노년층의 초등교육 이수율도 높은 Y-행복학교에서는 수강생들에게 디지털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판단했다. Y-행복학교는 ▲스마트폰 사용 기초 교육(문자보내기, 사진 찍고 공유하기) ▲카카오톡 이용방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 ▲유튜브 영상검색 및 공유 ▲키오스크 이용 이론교육 및 현장체험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사)포항YWCA 이에린 부장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포항YWCA는 12월 1일(금) (주)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에 김치로 위로와 온기를 나누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에서 담근 김장김치는 7kg 115박스다. 포항YWCA는 용흥동, 중앙동, 송도동, 해도동 등의 행정복지센터와 경북신체장애인복지회 외 장애인기관 3곳, 청소년 자유학교, 덕산119안전센터 등에 김치를 전달했다.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후원한 쌀도 함께 전했다. 김인에 포항YWCA 회장은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양YWCA

이효진 주임

어르신들을 위한 성탄행사



(사)광양YWCA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22일(금), 26일(화) 노인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펼쳤다. 광양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이용노인들이 따뜻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지역 아동들이 함께했다. 백합어린이집과 광양어린이집 원아들이 크리스마스 캐럴과 동요, 율동을 선보여 참석자들을 미소 짓게 했다. 아이들은 공연 외에도 직접 쓴 응원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장갑, 양말, 핫팩, 꿀 등이 들어있는 선물꾸러미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사)광주YWCA

김세화 부장

(사)광주YWCA 사무총장 이취임식

(사)광주YWCA는 1월 11일(목) 오후 2시 광주YWCA 1층 대강당에서 사무총장 이취임 예배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33년간 광주YWCA를 섬기고 헌신한 제11대 김신희 사무총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사무총장을 취임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역임한 윤정순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윤정순 신임 사무총장은 “여성과 함께해 온 광주YWCA의 긴 역사와 활동들을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면서 “정의·평화·생명 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군산YWCA

이명미 사무총장

(사)군산YWCA 성탄절 기념예배 및 송년행사



(사)군산YWCA는 12월 11일(월) 법인 이사와 본부 및 부속시설 직원 총 32명이 모인 가운데 성탄절 기념예배 및 송년행사를 진행했다. 군산YWCA 임직원들은 구주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YWCA 활동을 통해 군산 지역에 정의·평화·창조질서를 보전해 가자는 다짐을 했다. 1부 성탄예배에는 양병준 군산 순복음 중앙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2부 송년행사에는 법인 이사와 본부 직원, 부속시설 직원들이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직원들은 함께 2024년 소원을 나누고, 사전에 준비한 선물을 즉석 뽑기를 통해 전달했다.

(사)남원YWCA

임진아 간사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사)남원YWCA는 1월 25일(목) 남원시 동림로 일대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알리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을 실시했다. 거리에 나선 활동가들은 남원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알리고



자했다. 기후위기는 지구와 인류에 막대한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며,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불필요한 전력 소등부터 실천해나갈 것을 권유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사)목포YWCA 2024년 직원신년예배



(사)목포YWCA는 1월 2일(화) 본부 2층 회우실에서 2024년 직원신년예배를 진행했다. 목포YWCA 이사와 실무활동가들은 신년예배를 통해 2024년 목포YWCA가 계획한 비전과 운동들을 하나님 안에서 실천하는 활동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예배 말씀을 통해 참석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목포YWCA 본부와 산하 어린이집, 여성인력개발센터, 희망지원센터,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등의 각 기관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외에도 성경 문구 뽑기에서 고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계획과 다짐을 독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서귀포YWCA

현영아 간사

(사)서귀포YWCA 실무자 및 강사 임파워링 역량강화교육 진행

(사)서귀포YWCA는 1월 3일(수)~4일(목) 서귀포YWCA회관에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임파워링 코칭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자들이 전문 코칭 교육을 통해 필요한 대화기술을 익히고 전문 공익코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정순여 제주대학교 교수(전문 공익코치)가 맡았다. 정순여 교수는 ▲코칭이란 무엇인가 ▲코칭의 기본전제와 철학 ▲코칭의 기술 ▲프로세스 기반 코칭대화의 기술 ▲임파워링 코칭의 대화모델 ▲코칭 기술을 접목한 실전연습 ▲피드백 등의 내용으로 실무자들을 교육했다.

(사)순천YWCA

신정은 간사

아픈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 돌보미 집담회



(사)순천YWCA는 1월 23일(화) 순천YWCA 4층 등대실에서 아픈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 돌보미 집담회를 진행했다. 아픈아이 병원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으나 돌봄을 안정적으로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영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돌보미들이 병원으로 파견돼 아동의 식사·복약지원, 놀이 및 정서적 돌봄을 1:1로 지원하게 된다. 순천YWCA는 2023년 7월부터 전남 최초로 순천시의 지원을 받아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돌보미 집담회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 참석자들은 2023년 활동 내용과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돌보미에게 필요한 보수교육, 능력향상 프로그램 등도 함께 논의했다.

(사)여수YWCA 설수연 간사

(사)여수YWCA 성탄 축하 예배 및 직원 정년 퇴임식



12월 21일(목) 오후 3시 (사)여수YWCA 회관 4층 강당에서 2023년 여수YWCA 성탄 축하 예배 및 직원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육은정 이사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성탄 축하 예배에서는 류홍식(여수신성교회) 목사가 '성탄의 세 가지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2부에는 황승옥(여수여성상담센터) 소장와 양삼덕(늘푸른방과후아카데미) 부장의 정년 퇴임식이 있었다. 정년 퇴임식은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조애숙 회장의 격려사 및 재직기념패 증정, 꽃다발 및 선물 증정, 송별사, 퇴임 인사, 축복의 노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동료 직원들의 송별사와 퇴임 직원들의 퇴임 인사, 축복의 노래 순서에서는 이사, 직원,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승옥 소장와 양삼덕 부장은 "앞으로 시작 될 인생 2막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사)익산YWCA 감지수 간사

(사)익산YWCA 송년회



(사)익산YWCA는 12월 27일(수) 카페보소에서 자원활동가 및 실무활동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진행했다. 송년회에 참석한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는 2023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활동들을 돌아보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2024년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익산YWCA가 지역에서 어떻게 공공성과 책무성, 자치성을 가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전주YWCA 최은주 간사

(사)전주YWCA, 신년에배로 2024년 힘찬 출발



(사)전주YWCA는 1월 8일(월)에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가 모인 가운데 2024년 활동의 문을 여는 신년에배를 드렸다. 신년에배에서는 유정인(전주신일교회) 목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창세기 50:19-2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유정인 목사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경주를 다 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다. 뒤이어 이현순 전주YWCA 회장이 새해 인사를 전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새해를 맞아 서로를 축복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에배 때 모인 헌금은 북한 어린이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제주YWCA 김민지 간사

(사)제주YWCA, 2023 민들레 회원증모 발대식 진행



(사)제주YWCA는 12월 28일(목) 오후 6시 제주YWCA 회관 강당에서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민들레 회원증모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은 2024년 YWCA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협력자를 발굴하자는데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숙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회예배를 인도하며 발대식의 시작을 알렸다. 발대식은 개회예배와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 시간에는 Y-net에 게시된 'YWCA 운동 정책 이해'를 함께 시청하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회원단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회원들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연치료 참여 시 금연 성공률 6배↑ 혼자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하세요!

지원대상

-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지원내용

-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구입 비용 지원
- 3회차부터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센티브

-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약제비 전액 환급
※ 금연에 실패해도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

| 이수조건 |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기준 만족

-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 바레니클린, 보조제: 84일

참여방법

- 가까운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



☎ 1577-1000, 033-811-2090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 가까운 공단 지사

